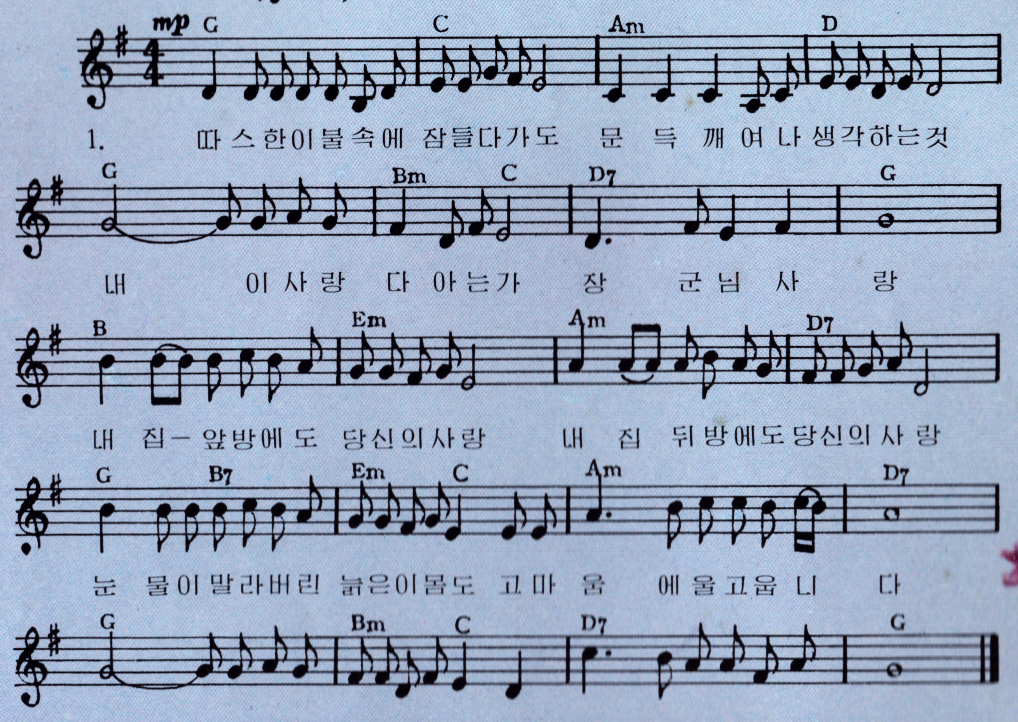

금수강산

7
1994

사랑에 대한 생각

뜨겁게

작사 리인모
작곡 리종오



2. 손자의 손목잡고 거닐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사랑
차디찬 감방에서 떨던 이내몸
지팡이인생으로 시들던 이 몸
당신의 큰 사랑이 그 무엇인지
늦게나마 알고 웁니다
(후렴)

3. 세상에 이런 사랑 또 있는가를
분단선 [illegible] 알았습니다
내 언제나 잊지 않으리 장군님사랑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끝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신
그 믿음 고맙습니다
(후렴)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7호(루계 제59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1면 금강산을 찾은 해외동포들
사진 김휘률

표지 4면 소백수의 여름
사진 남용일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143

빛나는 생애

7월 10일은 김형직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100돐이 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경모의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사람으로서 1894년 7월 10일에 만경대에서 탄생하여 1926년 6월 5일 망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갈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분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고 삼천리강산에 망국의 암운이 밀려와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준엄한 시기에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가난과 고통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며 성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부터 새것에 민감하고 향학열이 높으시였으며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항거의 정신과 조국광복을 위하여 한몸을 기꺼이 바쳐싸울 애국심에 불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1910년대에 평양숭실중학교 재학당시 반일민족해방투쟁무대에 나서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 도처에서는 반일의 기치높이 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 파업과 폭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들은 옳은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한 탓으로 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하여 의병들은 화승대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애국자》, 《우국지사》로 자처하던 사람들은 국외로 망명하거나 종교의 외피를 쓰고 은신하여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선행한 여러가지 투쟁의 본질적약점과 민족주의에 기초하였던 반일운동의 력사적교훈을 비판적으로 대하시는 과정에 민족자주의 진리를 찾으시였으며 따라서 나라의 독립은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워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였다.

선생님의 민족자주의 사상은 그이의 《지원》(志遠)의 사상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그이께서는 국내외에 있는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며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기 위하여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일대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방에까지 가시였다.

1917년 3월 23일에 결성한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주의 길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결성된후 동지규합과 조직확대, 군사간부와 인재 양성, 자금조달과 무기구입, 반일애국사상선전 등 사업을 벌려나갔다. 하여 조선국민회는 결성된후 불과 반년사이에 국내각지와 중국의 여러 지방에까지 그 조직이 퍼져갔다.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사건》으로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신후 상한 몸을 추세울 사이도 없이 중강, 후창, 포평, 림강, 팔도구, 무송 등지에서 험준한 고비를 수없이 넘으시며 조선국민회조직의 복구와 무장활동의 강화, 반일력량의 결속과 그의 통일단결 등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1919년 3.1인민봉기가 있은 이후 그해 8월 관전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며 무산민중이 잘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무산혁명방침을 밝히시였다.

참으로 선생님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선구자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관전회의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동포대중속에 관전회의방침과 그 수행방도를 침투시키고 선진사상을 전파하는 사업 등을 정력적으로 벌리도록 지도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무장조직들을 내오시고 군사간부의 육성과 무장부대들의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선생님은 만경대와 강동 등 가시는곳마다에서 학교를 세우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교육자이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맏아드님이신 **김일성**주석을 열렬한 애국자로,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시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셨을뿐아니라 가정을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으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경찰놈들에게서 받은 혹독한 고문과 압록강연안에서 입은 동상의 심한 후과로 하여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32살을 일기로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시였다.

정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생애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바쳐싸우신 열렬한 애국자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시는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열정,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강의한 혁명가의 고결한 생애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생전의 뜻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을 광복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꽃피우시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심으로 하여 이룩되게 되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우에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로재룡

숭고한 념원 꽃핀 땅

량강도 김형직군은 조선서해로 흐르는 압록강의 중류에 위치하고있는 군이다. 본래 후창군으로 부르던것을 1988년 8월 25일부터 김형직군으로 부르고있다.

이 군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을 비롯한 일가분들의 혁명사적이 수많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사적지이다.

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가신 포평나루터가 있고 주석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와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 삼촌 김형권선생님, 주석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를 비롯하여 주석의 일가분들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곳이 많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중국 8도구에 계실 때 자주 압록강을 건너오시여 이곳 포평지구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지금 포평나루터앞에는 주석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가신 당시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과 포평혁명사적탑이 높이 세워져있다.

동상주변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시기 비밀련락장소로 리용하신 포평국수집과 우편물위탁소, 헌병보조원의 집이 있으며 선생님께서 정치공작장소로 리용하시던 함경도집, 포평례배당 등 여러 사적건물이 있다. 그중에도 포평례배당은 선생님의 활동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강반석녀사께서도 선생님께서 바쁘실 때에는 야학방으로 쓰던 함경도집을 리용하시여 녀성들을 반일투쟁에 불러일으키시였다.

일제경찰놈들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귀순》시키려고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를 이곳에 끌고왔을 때 녀사께서 용감히 항거해싸우신 압강려관도 읍에 있다. 읍에서 25리가량 떨어진곳에는 선생님께서 포평회의를 지도하신 장소가 있으며 연포리에는 선생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가시다가 탈출하신 주막집이 있다.

이처럼 수많은 사적건물과 사적지가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어 이 지구는 마치 로천혁명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의 거점으로 리용하시던 례배당

주석의 동상옆에는 포평혁명사적관이 웅장하게 건립되였다. 또한 김성주학생소년궁전,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답사하기 위하여 오는 학생들을 위한 답사숙영소와 중앙포평소년단야영소가 군에 자리잡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을 비롯한 일가분의 혁명사적이 수많이 깃들어있는 이 군은 해방후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해방전에 이곳에서는 감자와 콩, 강냉이를 얼마간 심었을뿐이였는데 강냉이는 정당 1~2톤밖에 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이 몹시 빈곤하던곳이다.

주석께서는 이 군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며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군소재지를 잘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높이고 농업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군소재지에는 큼직큼직한 공공건물과 4~5층짜리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앉게 되였다.

그리고 80키로메터의 물길이 건설되여 벼를 적지않게 재배할수 있게 되였으며 1,000여정보의 밭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였다. 지난해 이 군의 포삼협동농장에서만 보아도 강냉이를 정당 9톤이상 거두었다.

군에서는 축산에도 큰 힘을 넣고있는데 양과 돼지 종축장에서 생산한 종축들을 도안에 공급하고있으며 꿀과 일련의 고려약재 생산에서는 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특히 이 군은 2개의 큰 림산사업소와 1개의 류벌사업소를 가지고있는 림업지대이다.

군에는 지방산업공장들도 많이 건설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목재가공공업이 특별히 발전하였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구들은 중앙과 도의 품평회들에서 매번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으며 전국의 방직공장들에서 절실히 필요한 북이 대부분 이곳에서 생산보장되고있다.

해방전 군에는 학교라고는 보통학교 2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등전문학교를 비롯한 32개의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가 있으며 19명 학생들을 위한 통학렬차가 운영되고있다.

리들에는 작업반마다 유치원, 탁아소들이 꾸려져있다.

또한 학생들은 7,400평방메터의 건평을 가진 김성주학생소년궁전에서 자기들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군에서는 보건사업도 발전하였다. 건평 4,500평방메터의 건물로 건설된 김형직인민병원에는 150개의 침대를 가진 입원실과 현대적의료시설을 갖춘 수술실 그리고 각 부문의 전문치료를 하는 과들이 꾸려져있고 농장마다 리인민병원이 마련되여있어 깊은 산골에 사는 주민들도 의료상방조를 무료로 받고있다.

이처럼 오늘의 김형직군은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숭고한 뜻이 꽃핀 락원의 땅으로 전변되였다.

본사기자 리운봉

교육과 173만 인테리대군

참가자：△리관수：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인준：교육위원회 국장, 부교수, 준박사
△김경완：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홍일천：김형직사범대학 학장, 부교수, 준박사
△전광춘：평양대동문인민학교 교장, 로력영웅, 인민교원
△문수옥：개천백화점 지배인, 로력영웅
△사 회：본사기자

△사회：모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어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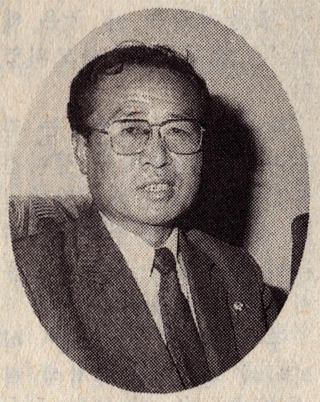
그사이 교육부문에서는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렇게 자리를 갈이했습니다.

△리관수：참으로 감격도 새로운 1984년 7월에 있은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에서 서한을 받아안고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었던 일이 엊그제같은데 세월은 류수와 같이 빨라 벌써 10년이 되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한에서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교육은 서한에서 밝혀준 길을 따라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일동：그렇습니다.

△조인준：옛날 뜻있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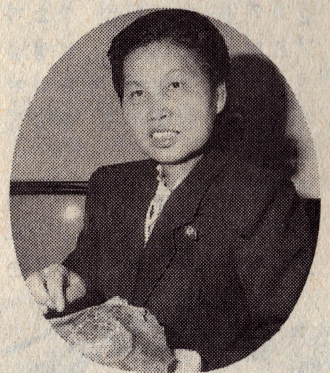


문인은 교육을 놓고 그것을 《인생대하의 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강물의 흐름과 같은 삶의 시작이고 원천이라는 뜻이지요. 그만치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화국정부에서는 해방후 교육사업부터 먼저 발전시켰지요.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회의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켰던겁니다.

공화국정부의 교육중시정책에 의하여 해방전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우리 나라에 지금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280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1만여개의 각급 학교들이 전국각지에 있습니다.

△전광춘：저는 서한발표 10돐을 맞으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이 한계단 높아진데 대하여 감명깊게 회고하게 됩니다.

우리 대동문인민학교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고 교육방법도 부단히 개선되여 지금 우리 학교 학생 전원이 모두 최우등생이 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특수한 소질과 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키워준 결과 6살에 인민반 1학년에 입학



하여 4개월동안에 1학년과정을, 6개월동안에 2~3학년 과정을 마치고 4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윤학범어린이와 같은 수재들이 많이 배출되고있습니다.

△리관수：특수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런 수재들은 어디서나 수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유치원, 인민학교 시절에 세계적인 꼬마미술가로 이름을 날린 오은별, 꼬마시인 김일신, 7살에 바둑강자로 널리 알려진 최은아어린이, 6살에 인민학교의 과정을 뛰여넘어 남포제1고등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정광성 등 그 이름을 꼽자면 수두룩합니다.

△사회：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자면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놓고 좀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동：그게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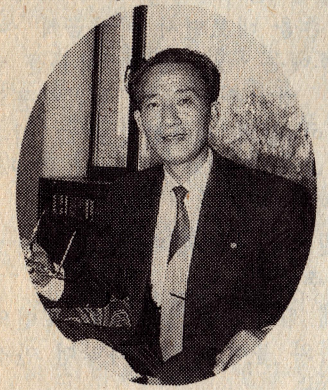
△김경완： 아시는것처럼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지난 기간 90여개의 새 과목들을 개척하고 공작기계와 기계제작 부문을 비롯한 340여개의 전공과목내용들을 새로 편성하고 교육강령과 교과서, 참고서들을 모두 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여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이 부문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자연부원의 탐사 및 개발, 기업관리의 전자계산기화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 9만여평방메터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새 교사가 증축된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입니다.

△사회：연건축면적이 9만여평방메터면 본교사의 2배나 되지 않습니까?

△김경완：그렇습니다. 15층 새 교사에는 2,000석의



종합강의실, 10개의 계단강의실, 강좌실, 각종 실험실, 설계실, 교편물보관실 등 방수만 해도 1,000여개나 됩니다.

△조인준：총장선생도 언급했지만 지난 기간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의 모든 대학들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들을 더 늘이고 그의 지역적배치와 과학부문별 편성을 합리적으로 했으며 대학들에 2년제 연구원을 새로 내오고 일부 고등전문학교들을 단과대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984년 10월 1일에 24개의 단과대학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있던 대학들에는 새로운 학부와 학과들을 내옴으로써 고등교육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그의 질적수준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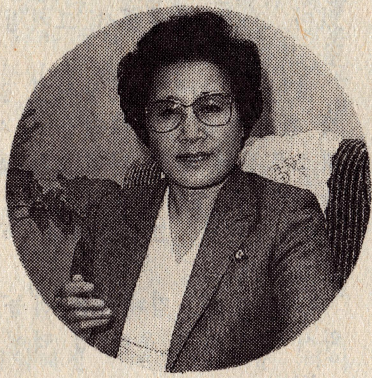
△사회：교육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수준도 훨씬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홍일천：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은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우리는 교원들의 자질을 빠른 기간안에 높이는데 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학위, 학직 소유자 교원대렬이 훨씬 늘어났지요. 서한발표당시에 비하여 그 수는 수배로 늘어나 대학의 교수사업은 대부분 학위, 학직 소유자들이 담당하여 수행하고있습니다.

△김경완：우리 대학의 경우도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를 비롯한 1,200여명의 학위, 학직 소유자들이 있으며 20대, 30대의 박사, 준박사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물리공학부 응용수학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의 학생들이 대학기간에 가치있는 과학론문들을 내놓았습니다.

△홍일천：우리 김형직사범대학에는 중국, 로씨야, 미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이 많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참관하고 교원들의 수준이 높은데 대하여 감탄하고있습니다.



미국 윌리암 캐리국제대학 고려연구소 소장인 재미교포 조덕천은 우리 대학을 돌아보고 대학생들의 교육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였을뿐아니라 그들이 건전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나라의 쓸모있는 민족간부로 자라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해외교포자녀들도 와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사회：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만드는것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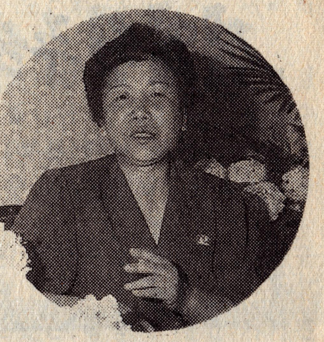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큰 은을 내고있다고 봅니다.

△일동：그렇습니다.

△조인준：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규적인 교육망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망에 의하여 더욱 빨리 실현되여 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도처에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마음껏 배울수 있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있으며 외진 산간벽촌에도 대학의 분교와 강의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교원의 강의와 지도를 원만히 받고있으며 교육과 실천이 밀접히 결부된 산지식을 습득하고있습니다.

△문수옥：아마 여러분들은 교육문제를 론의하는 이 자리에 상업부문에서 참가했다고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저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생활력을 실지 체험한 사실을 놓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갈이하였습니다. 우리 개천백화점의 일군들과 판매원 58명 전원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안고 원산에 있는 정준택경제대학에 입학한것은 1985년 12월이였습니다. 그때 상업경영학부장 류재순과 김태환, 김옥신 선생들은 1년에 6개월씩 현지에서 강의를 하여주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상점문을



열기전에 매일 1~2강의씩 하고 하루 봉사가 끝난후에는 강의와 복습, 자습, 예습을 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처음 대학공부를 시작했을 때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모두가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1991년 6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날한시에 경제사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꾸준한 노력으로 실천속에서 하나하나 체득한 산지식과 경험을 디딤돌로 하여 인민을 위한 봉사를 더 잘해나가고있습니다.

△김경완：이런 실례는 개천백화점의 봉사일군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만 보아도 숙천군 광천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 137명은 남포대학을 졸업하고 같은날에 농산기사자격을 받았습니다.

△리관수：지금 우리 인민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배우고 또 배우고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인구의 절대다수가 문맹자였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173만명을 헤아리는 인테리대군이 마련되였습니다.

△사회：173만의 인테리대군, 이것은 우리 나라가 가지고있는 재부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하고 큰 재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3)중에서

인민의 품

3중으로 된 적의 보초소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우리가 그 운명적인 밤에 선택한 숙영지는 웃설미가 없고 벽체만 남아있는 다왜즈골안의 불탄 집터자리였다. 그 집터자리에서 전우들은 하루밤과 옹근 하루낮을 내 간병을 위해 바치였다.…

16명중 일부는 만주국에 호적등록을 하지 않고 산다는 조선사람들의 집을 찾으려고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종일 산발을 헤매였다. 그러나 일본군경들과 만주국관헌들의 눈을 피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들은 한밤중에야 잣나무, 봇나무, 분비나무들이 울창한 로야령 산중턱의 태고연한 수림속에서 귀틀집을 한채 발견하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들속에 다왜즈의 외딴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조택주로인네 집이였다. 회상실기 《부디 만년장수하시라!》를 쓴 최일화어머니는 조택주로인의 맏며느리이다.

…

우리 정찰조성원들이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자 조택주로인은 아들 조욱과 손자 조영선의 등을 떠밀며 **김일성**대장님께서 병환에 계신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분께서 촉한때문에 고생하시다니 될말이냐, 어서 가서 유격대원들을 모셔오라고 불같은 령을 내리였다. 며느리 최일화더러는 물도 끓이고 미음도 쑤라고 하였다.

조택주로인의 집에서부터 우리가 머물고있는곳까지는 지름길로 20리가 넘었다. 조욱과 조영선이 정찰조성원들과 함께 우리의 숙영지에 당도하였을 때 원정대원들은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아 혼수상태에 빠진 나를 위해 밥통에 물을 끓이고있었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나를 업고 조택주로인네 집으로 향하였다. 왈룡이는 후위에서 솔가지로 발자국을 메꾸었다.

소시적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다는 조택주로인은 한흥권중대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나서 김대장의 병은 과로와 영양실조, 지나친 랭으로부터 생긴 촉한이라는 중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것과 그러나 몸을 덥게 하고 땀을 많이 내면 사흘안팎에 나을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는데서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장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사불성으로 계시는것은 몸에 혈맥이 잘 통하지 않는데 까닭이 있소다. 혈맥만 잘 통하면 알도리가 있으니 걱정들 말구 우리 둘째네 집에 가서 푹 쉬오다.》

로인이 며느리와 함께 내 손발과 팔다리를 주무르며 한흥권중대장을 향해 한 말이였다. 며칠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가운데 두고 우거지상이 되여 앉아있던 원정대원들은 그 한마디말에 힘을 얻었다.

원정대원들은 로인의 말대로 조영선을 앞세우고 도랑건너편에 있는 조경이네 집으로 갔다.…

조택주로인은 끓는 물에 꿀을 반사발가량 타서 나에게 주고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손을 대보면서 이따금씩 내 병세를 가늠해보았다. 조금후에는 꿀물에 탄 미음을 권하였다. 그날밤 로인과 함께 병시중을 들던 호위병들의 말에 의하면 내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것도 그 미음을 먹은 다음이며 그때부터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는 혼수상태에서 깨여났다고 한다.…

내 눈은 희슥희슥한 장미밑에서 부드럽게 나를 굽어보는 낯설은 늙은이의 눈과 마주쳤다.

나의 바른편 손목을 가볍게 잡고있는 장알박인 로인의 손에서는 유년시절의 내 이마와 볼에 곧잘 와닿던 만경대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게 어딥니까?》

나는 나를 굽어보고있는 수수께끼같은 로인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그 한마디의 물음은 로인의 얼굴에서 말이나 글로써는 다 그려낼수 없는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였다. 늙은이의 입가에 엇비스듬히 비껴있는 웃음기는 순식간에 볼과 눈가에로 퍼져가 땅과 같이 유순하고 땅과 같이 순박한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일생에서 그처럼 순결하고 미더운 얼굴을 처음 보는듯하였다.

로인의 옆에 조각상처럼 앉아있던 왈룡이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원정대원들이 사선을 헤치고 시패린즈의 목재소로부터 이곳 다왜즈의 골짜기에 이를 때까지의 전말을 단숨에 설명해주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댁의 덕분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니오다. 김대장은 하늘이 낸 장수이니 이 귀틀집에 와서 소생한건 우리 집 덕이 아니라 천명이오다.》

…

《할아버지,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나를 하늘이 낸 장수에 비기는건 너무 과분한 평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장수가 아니라 이름없는 농사군의 집에서 태여난 인민의 아들이고 손자입니다. 조선의 군사로서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습니다.》

《그건 안될 소리오다. 김대장이 얼마나 큰 전공을 세웠는가 하는건 온 세상이 다 알고있소다. 내 비록 이름모를 산골짜기에 와서 부대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몸이지만 동북 3성에서 돌아가는 풍문은 다 듣구있소다. 애들아, 이분이 바로 재작년 가을에 조선군대를 거느리고 오사령네 부대하구 같이 동녕현성을 쳤다는 그 유명한 김대장이시다. 날래 절들을 하거라.》

로인은 내가 소생했다는 왈룡의 전갈을 받고 새벽잠자리에서 뛰쳐일어난 유격대원들과 함께 부엌문으로 쓸어들어오는 자손들을 보고 열띤 목소리로 분부했다.

나는 이불밑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켜세우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관청의 호적등본에도 오르지 않고 우체부들도 다니지 않는 심산의 귀틀집에서는 때아닌 웃음소리가 간단없이 울리였다.

…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인데 이런 막바지까지 쫓겨오셨습니까?》

나는 피줄이 시퍼렇게 두드러져오른 조택주로인의 갈퀴같은 손등에 손을 얹고 옹근 반세기의 정치사가 고스란히 담겨져있는것 같은 로인의 주글주글한 얼굴을 련민의 정에 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내 고향이야 무산군 삼장면입지요. 일본놈들 등쌀에 견딜수 없어 29살 때 고향땅을 떠나 화룡땅으로 건너왔소다.》

조로인의 쓸쓸한 대답이였다.

…

나는 다음날부터 병상에서 일어나 산보도 하고 독서도 하였다.…

사흘인가 나흘이 지났을 때 나는 대오에 출발명령을 내리려고 하였다. 14식구나 되는 대가정에 그보다 더 많은 장정들이 얹혀서 화전농의 빈약한 쌀독을 축내며 더부살이를 하는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

그러나 조택주로인은 우리가 끼치는 부담때문에 난색을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 나라 군대를 잘 섬기는것은 백성의 응당한 도리이고 직분인데 폐는 무슨 폐인가고 하면서 입도 벌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로인이 참말 대범한 늙은이였다.

최일화어머니도 마음씨가 무던히 고운 녀자였다. 화전농사여서 흰쌀은 없었지만 조, 콩, 보리, 귀밀, 감자와 같은 잡곡으로 하루 세끼씩 우리 구미에 맞게 밥을 맛있게 해주었다. 때로는 비지도 해주고 밥상에 막두부장도 놓아주었다.

최일화어머니는 병으로 쇠약해진 나에게 고기를 먹이지 못하는데 대하여 못내 가슴아파하였다.

…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최일화어머니는 부뚜막앞에 쭈그리고 앉아 가슴을 조이군하였다. 밥을 다 들지 않고 중도에서 수저를 놓으면 어쩌나해서였다.

나는 입맛이 없을 때에도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개다리소반의 밥과 찬을 억지로 다 들군하였다. 그럴 때마다 최일화어머니의 입가에는 느슨한 웃음기가 배비치군하였다.

인민이 우리에게 바치는 정이란 참말로 깨끗하고 구김이 없었다. 만일 그 정을 강물이나 시내물에 비길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청류》나 《옥류》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 정은 길이로써도 잴수 없고 무게로써도 가늠할수 없는 무한대한것이다.

인민의 사랑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있다. 인생의 첫째가는 진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가. 이 진미를 아는 사람만이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고 충복이 될수 있다.



조택주로인과 그의 며느리 최일화

조택주일가의 꾸준한 지성으로 내 건강은 빨리 회복되였다.…

며칠후 나는 조택주로인의 만류를 무릅쓰고 대오에 출발명령을 내리였다.

로인에게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귀틀집앞에 정렬해선 일행의 표정은 자못 근엄하였다.

《할아버지, 나는 업혀서 이 댁에 왔다가 두발로 걸어서 유격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댁이 아니였더라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했을것입니다. 내 언제든지 이 신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

조로인은 내 말을 매우 송구스럽게 받아들이였다.

《고기 한점도 대접해드리지 못한 백성인데 칭찬이 너무 과하오다. 김대장을 더 오래 모시지 못하고 떠나보내는것이 한스럽소다. 그렇지만 조선을 위해서 빨리 가야 할 걸음이니 굳이 막지는 않겠소다.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두 이 산골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장만 믿소다.》

《살길을 찾아온 이국땅에서까지 해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하니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큽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제 해빛을 보면서 살게 될 날은 멀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놈들의 〈토벌〉이 심해지고 이 골안에서도

총소리가 잦아지겠는데 고생스럽겠지만 라자구쪽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혁명바람이 센곳이니 여기보다는 거기가 안전할겁니다.》

나는 이런 부탁을 남기고 다왜즈의 골안을 떠났다.

최일화어머니는 그때 우리의 배낭속에 밤새워 조와 보리를 찧고 쓿어서 마련한 3일분의 길량식을 넣어주었고 봇나무껍질에 고추장과 쉐기밥을 싸서 도중식사까지 갖추어주었다. 어머니의 맏아들 조영선은 로야령눈무지를 헤치며 우리를 팔인구까지 안내해주었다.

그후 조로인의 집근처에서는 《토벌대》의 총소리가 자주 울리였다. 우리의 예언이 맞아떨어진것이다. 밤중에 식량과 헌옷가지들을 대충 싸가지고 은밀히 다왜즈를 떠난 조로인일가는 태평구로 이사하여 거기서 소작살이를 시작하였다.

나는 그해(1935년) 6월 태평구에서 이 일가사람들을 다시 만나보았다. 로흑산에서 악질적인 정안군부대를 괴멸시킨 동만의 원정부대는 그때 태평구 건너편마을인 신툰자에 머물러있으면서 맹렬한 군중공작을 벌리고있었다. 우리는 태평구마을에도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왜즈골안에서 조로인일가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이였다.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우연히 조택주로인을 만나보고 나에게 그 사연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날로 조택주로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반년전에는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업혀서 로인의 집에 갔던 나였다. 내 곁에는 북만의 광야에서 지칠대로 지친 16명의 대원들밖에 없었었다. 하지만 그날은 16명이 아니라 대부대를 거느리고 원기왕성한 몸으로 로인을 찾아갔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람이 바칠수 있는 최고의 지성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살틀히 돌봐준 생명의 은인들, 그런 은인들한테로 가는 걸음치고는 우리의 행장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홀가분하였다. 내 수중에는 몇근의 고기와 한두달동안의 농량을 보탤만한 얼마간의 돈밖에 없었다. 그 몇근의 고기가 몇십마리의 가축이 되고 그 몇푼의 돈이 한달구지의 금화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흐뭇하겠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

가난의 자취가 력력한 초라한 사랑방, 그 사랑방에서 헌 누데기를 걸치고 비비닥거리는 여라문명의 대식구, 궁상은 극에 이르렀건만 나를 맞이하는 이 일가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떨기떨기 피여났다. 나는 토방돌우에 걸터앉아 로인과 함께 회포를 나누었다.…

다왜즈에서 살 때만 해도 민생문제를 많이 론하던 조로인이 그날은 놀랍게도 혁명군의 전과와 관련된 한가지 화제에만 관심을 표시하였다. 세월은 그를 반년사이에 딴사람처럼 변모시키였다. 그는 세상을 향해 침을 뱉고 돌아선 무기력하고 무저항적인 은둔자로부터 자기가 결별하고 떠나간 생활의 한복판에 다시 돌아와 래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락천가로 변하였다.

(군대가 싸움을 잘하면 인민의 배짱이 커지는구나!)

이것은 그날 조로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아안았던 충격이였다.

나는 로인의 집을 떠날 때 살림에 보태쓸수 있는 용돈을 얼마간 남기고 다음날에는 대원들을 파견하여 로흑산전투에서 로획한 백마 한필을 보내주었다. 좀 여윈 말이기는 하지만 살을 잘 찌워서 역축으로 쓰게 하자는것이였다. 조로인일가가 나에게 바친 정성에 비기면 너무나도 빈약한 보상이였다. 돈이나 재물 같은것만으로는 이 일가에 진 빚을 후히 갚을수 없었다.

파란많은 운명의 숨박곡질은 그후 나와 조택주일가를 련결시켜주고있던 혈연의 실마리를 끊어놓았다. 그 당시의 나의 주되는 활동무대는 백두산지구였다. 백두산지구에 나온 후로는 태평구마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내가 조로인일가의 행방을 알게 된것은 1959년 가을이였다.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였던 항일무장투쟁전적지답사단이 녕안땅에서 최일화어머니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나에게로 날아왔다.

…

이듬해 최일화어머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 최일화어머니의 년세는 67살이였다. 다왜즈골안의 음달에 쌓여있던 장설이 그대로 얹혀졌는가, 어머니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한 백설로 덮여있었다. 량세봉의 부인처럼 그도 처음에는 내 손을 붙잡고 울기만하였다.

《어머니, 이 기쁜날 왜 우십니까.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물을 훔쳐드리려고 손수건을 꺼내자 최일화어머니는 눈언저리에 옷고름을 가져다댔다.

《수상님께서 촉한때문에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내 고생이야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진짜고생이야 어머니하구 조택주할아버지가 했지요. 나는 그 은혜를 잊을수 없어 조국이 해방된 다음 만주에 사람들을 보내서 일가분들을 그냥 찾았습니다. 우리가 태평구에서 헤여진게 아마 1935년 여름이였지요? 〈토벌〉이 심해서 녕안으로 가셨다는데 그다음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마를 가지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그것으로 명줄을 이었습지요. 수상님께서 주신 그 백마가 아니였더라면 우리는 다 굶어죽을번했습니다.》

《백마가 은을 냈다니 나도 기쁩니다. 조택주할아버지가 195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내내 수상님 말만 했습니다. 미국비행기들이 평양을 폭격했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면 〈**김일성**장군님께서 무고하셔야겠는데.〉, 〈장군님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 하면서 잠도 못주무셨습니다.》

조택주로인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건강을 축원했다는 최일화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다.

변하지 않는것은 인민의 정이였다.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해도 우리에게 바치는 인민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랑은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래일로 승화되며 그 어떤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퇴색하지 않고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영원한것이였다.

…

제12차 4월의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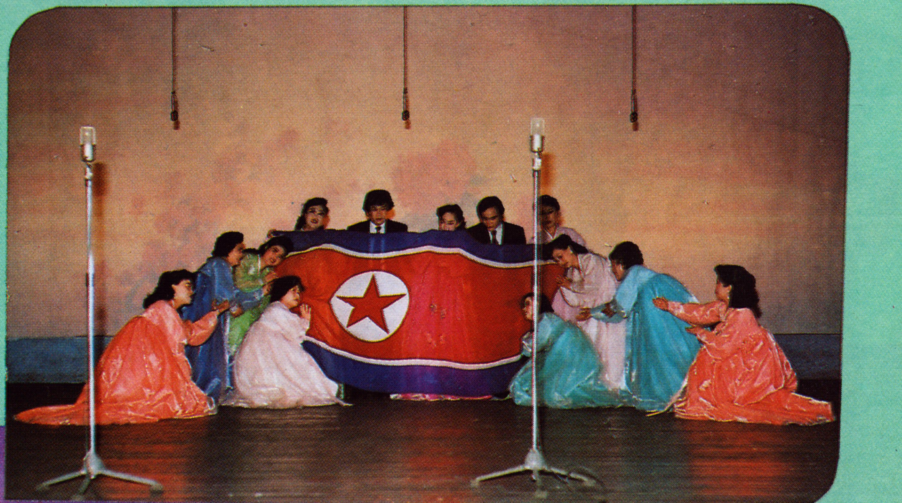
재중조선인 예술단의 공연중에서



녀성독창《수령님 우러러 간절한 마음》



녀성독창《수령님 모신 영예 끝없습니다》





설화와 노래《수령복을 노래하세》



설화와 노래

3중창 《내 조국이 제일로 좋아》





녀성독창과 3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제12차 4월의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예술단의 공연중에서



무용 《흰눈이 내리는데》



남성독창 《김일성대원수님 만만세》



독무 《북춤》



무용 《물동이춤》



설화와 녀중창 《내 조국이 제일로 좋아》



녀성독창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무용 《목동과 처녀》



무용 《돈돌라리》



무용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재중조선인예술단과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의 합창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민족예술을 꽃피우는 동포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 있는 조선민족예술단들중에서 선발된 《광복》예술단(우즈베끼스딴), 《아침노을》예술단(까자흐스딴), 《진달래》예술단(끼르끼즈스딴)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우수한 배우 50명으로 구성되여있다.

예술단의 특징은 관록있는 배우들과 함께 젊고 전도유망한 신인배우들을 많이 망라하고있는것이다.

이번 축전에서 예술단은 노래, 무용 등 20여개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고국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민족문화에 대한 강렬한 지향, 높은 예술적기교로 충만된 예술단의 공연은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역땅에서도 전통적인 민족문화가 꽃펴나고 그 대가 잘 이어지고 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

아래에 예술단의 일부 주역들을 소개한다.

독창가수 박 류드밀라



인기있는 녀성고음독창가수인 박 류드밀라는 《광복》예술단의 배우이다.

그의 생애에서 20여년간은 예술과 함께 흘러갔다. 무용수, 의상사 등으로 오래동안 예술부문에 종사해왔지만 그의 존재가 뚜렷이 알려진것은 1991년에 《광복》예술단의 독창가수로 무대에 나타난 때부터였다.

맑고 고운 음색과 감미로운 서정이 결합된 그의 노래는 대번에 관중들을 매혹시켰다.

박 류드밀라는 최근 3년동안 조선노래 《오직 한마음》,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사랑가》를 비롯한 40여곡의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이번 축전에서도 그는 《오직 한마음》을 잘 불러 절찬을 받았다.

나이에 비해 몹시 정열적이며 인상적인 몸가짐도 노래와 잘 어울려 관중들과의 교감을 매우 원활하게 해주고있다.

그는 조선노래뿐아니라 이전 쏘련의 여러 민족노래들도 재치있게 불러 우즈베끼스딴, 까자흐스딴의 관람자들에게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수준이 있는 배우지만 무대에 나설 때마다 마음을 조이군한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음악과 관중들 앞에 고지식하고 성실하다.

앞으로 그는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많이 부를 결심이라고 한다.

배우 최 마리야



《진달래》예술단의 최 마리야는 만능의 배우로 알려져있다.

그는 배우인 동시에 작가이고 연출가이며 지휘자이기도 하다.

1979년에 예술대학을 졸업한 그는 여러해동안 연극배우생활을 하였다.

최 마리야가 끼르끼즈스딴의 《진달래》예술단에서 예술활동을 한지는 이제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기간에 그는 자신이 직접 작품을 쓰고 연기형상을 지도하며 무대에도 출연하는 등 맹활약을 해왔다. 최근년간에 《진달래》예술단이 예술활동에서 거두고있는 성과에는 그의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수고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창조집단의 단합된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고있으며 자기는 항상 집단의 힘에 이끌려갈뿐이라고 말하군한다.

최 마리야는 《진달래》예술단의 기둥일뿐아니라 가정에서는 성실한 안해, 다심한 며느리, 살뜰한 어머니로 사랑을 받고있다.

불같은 정열과 노력이 그의 원만한 예술활동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훌륭히 담보해주고있는것이다.

건설로동자인 그의 남편은 이런 안해를 몹시 위해주고 도와준다고 한다.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

큰절

—재중조선인예술단—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오른 작품들가운데서 재중조선인예술단의 설화와 노래 《수령복을 노래하세》는 특별히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련환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성원들은 끓어넘치는 격정에 눈물지으며 설화와 노래의 화폭을 펼치였었다.

자나깨나 꿈결에도 그리운
어버이수령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뵙고싶어
저희들이 왔습니다

곁에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시며
잠못이루시는
위대한 두분의 사랑의 손길에 이
  끌리여

이역땅 중국에서 살고있는
재중동포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절절한 설화에 이어 울려퍼지는 노래.

세상에 제일 큰 복 조선사람 다
  고났네
복중에 제일 큰 복 수령복을 타
  고났네
5천년 력사를 돌아봐도
이처럼 큰 복이 있었던가

한 세대에 위대하신 두분의 태양
  모셨으니
우리 민족 이 영광을 길이길이
  노래하세
온 세상에 자랑하세

…

설화와 노래를 마감지으며 출연자들은 큰절을 올린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주석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장군님!

우리 재중동포들이 삼가 드리는 만수축원의 큰절을 받아주십시오!》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심장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 《수령복을 노래하세》를 비롯하여 그들이 무대에 올린 종목들에는 참으로 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있었다.

× ×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 기쁨을 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았을 때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의 정각현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은 누구나 축전무대에 가장 의의깊고 훌륭한 작품을 올리자는 열렬한 지향을 표명하였다.

최근 원쑤들의 책동이 날로 심해지는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며 동포들은 누구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세계만방에 그 존엄을 떨치고있는 조국!

우리들이 그 조국의 공민된 영예와 보람을 안고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나갈수 있는것은 과연 누구의 덕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만난 덕이다.

이에 대하여 오늘 사람들은 수령복이라고 말하고있다.…

진지한 론의가 계속되는가운데 서로서로의 마음은 이렇게 한곬으로 흐르고있었다.

이런 심정을 그들은 설화에 담고 노래의 구절구절에 반영하여 작품을 만들어나갔다.

이렇게 하여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올릴 재중조선인예술단의 새로운 작품인 설화와 노래 《수령복을 노래하세》가 완성되여 세상에 나왔다.

예술단성원들은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련습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작품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출연자들의 형상수준이 높지 못하면 빛이 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며 분과 초를 쪼개여 련습에 열중했다.

주역을 맡은 김승걸, 리혜영은 화술형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려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낮과 밤을 이었다.

축전무대에 처음 오르는 안신숙, 손경자는 기량 어린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였고 축전에 이미 여러번 참가한 엄순자, 김길옥은 경험도 들려주며 그들을 적극 도왔다.

장복자, 김영화, 박예숙, 김영희는 가사발음 하나, 음정 하나, 동작 하나에도 손색이 있을세라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다.

재중조선인본부 일군들과 후원회, 동포들의 지성에 떠받들려 그들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민족의상도 훌륭히 마련하였다.

축전무대에 오를 시각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가슴마다 간직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잊지 않고 되새기군하였다.

—집걱정말고 어서 떠나라.

—공연을 잘하라.

—어버이수령님께 큰절을 올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올려다오.

김영철도 그런 부탁을 안고 왔다.

그 부탁에는 더우기 사연이 있었다.

평양에 오기전 일이였다. 어느날 그만 그의 가정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안해가 교통사고로 심히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던것이다. 그 곁에 간호할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열살난 딸애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영철은 모대겼다. 하지만 축전장으로 달리는 그의 마음은 간절했다.

(너도나도 가고싶어하는 4월의 평양!

누구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는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는데 가정사정으로 물러서다니. 아니, 그럴수 없어.…)

영철은 자기의 마음을 안해에게 비쳤다.

그랬더니 안해는 걱정말고 어서 가라고 미소를 담고 말하였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의 가정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었다.

이웃들이 영철의 안해를 도와나섰다.

어서 떠나라고 떠미는 사람들에게 영철은 말했다.

《고맙습니다. 내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합쳐 축전무대에서 공연을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축전에 직접 참가한 예술단성원들은 십여명밖에 안되였으나 그에 합쳐진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그 마음들은 이국땅 멀리에서 평양까지 계속 이어지고있었다.

지순복은 두번이나 남편에게서 온 국제전화를 받았다.

앓지 말고 공연에 잘 참가하라, 나는 지금 평양에서 돌아올 당신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집을 일신시키고있다.…

이 전화내용을 즐거운 화제거리로 삼으며 예술단성원들은 자기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더욱 깊이 자각했다.

이처럼 평상시 간직한 절절한 마음에 축전과 더불어 열화같이 달아오른 마음을 더하여 축전무대를 장식한 예술단이기에 관중들은 물론 다른 예술단들도 그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뜻깊은 련환공연의 그날 재중조선인예술단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 영광까지 지녔다.

그 격정을 이길수 없어 예술단성원들은 숙소에 돌아와서도 서로 부둥켜안고 만세를 불렀다.

그날 그 자리에서 리순옥부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무대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만수축원의 큰절을 드리는 심정을 삼가 말씀올린 나는 이 영광을 간직하고 목숨이 진할 때까지 변함없이 애국성업의 앞장에서 나아가겠어요.》

열렬한 호응의 목소리들은 4월의 봄하늘가로 메아리쳐 울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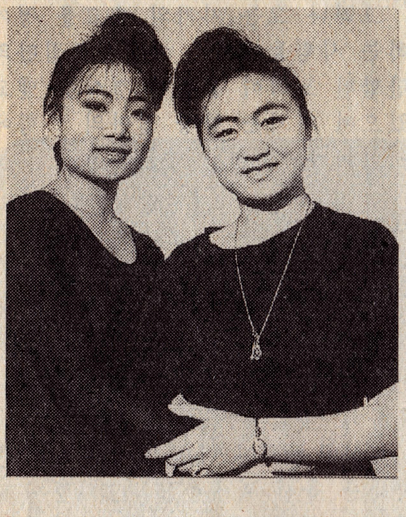
본사기자 련순옥

대에 오른 시와 노래, 무용 《잊지 못할 조국》에는 그가 시를 쓰고 랑송한 다음의 대목이 있다.

거대한 아세아대륙의 동쪽에
《맑은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우
  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

고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 바로 여기에 그의 열정을 샘솟게 하는 시원이 있는것이다.

무용수들인 박 알료나와 김 마리나



대동강반의 정서깊은 야경을 배경으로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노래선률이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무대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10여명의 무용수들이 우아한 춤률동을 펼쳐놓는다.

그 중심에서 두손을 마주모아 평양의 밤하늘에 축복의 꽃보라인양 한껏 솔을 펼쳐올리고있는 두 주인공의 량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예술적감흥만이 아닌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의 무용은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는다.

이들은 무용《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에서 주역을 담당한 《아침노을》예술단의 박 알료나와 김 마리나이다.

원숙한 무용동작과 진지하고 사색적인 얼굴표정은 무대생활년한이 오랜 배우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실지 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지는 몇년 되지 않는다.

박 알료나는 올해 20살, 김 마리나는 15살나는 애어린 처녀들이다.

얼굴모색이 서로 비슷한데다가 기량 또한 높아 관중들로부터 《쌍둥이》무용수란 말을 자주 듣군한다.

박 알료나는 14살, 김 마리나는 12살때부터 무용을 배웠다.

《아침노을》예술단에 망라되여 예술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리면서부터 그들의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박 알료나는 지난 2월 따슈껜뜨에서 진행된 고려민족예술축전 무용경연에서 단연 특등을 하였다.

김 마리나 역시 경연에서 재능있고 전도유망한 무용수로 평가되였다.

박 알료나와 김 마리나는 《돈돌라리》,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등 10여개의 무용작품에 출연하고있다. 적지 않은 무용작품들에 그들은 함께 출연하여 쌍기둥을 이루고있다.

박 알료나의 률동이 섬세하고 우아하다면 김 마리나의 특기는 대담하고 재치가 있는것이다.

박 알료나는 포착한 사물현상을 즉시에 률동에 담을줄 아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있으며 자체로 무용동작을 만들어내는 창작적기질도 소유하고있다.

김 마리나는 박 알료나의 수준을 한시바삐 돌파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고있다.

이제 무용계에서 첫걸음을 뗀데 불과한 이들의 앞날이 몹시 기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동포연단

본 분

저는 60고개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조국을 위해 해놓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문에 무시로 갈마드는 자책감에 모대긴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가닥 마음의 위안이 되는것은 저와 저의 자식들 5남매가 수십년세월 조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제남시에는 조선동포들이 많지 않은데다가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까닭에 조선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모두 중국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선 말과 글을 배워주고 받은 지식이나마 조선의 력사와 문화, 지리에 대하여 아는것 이야기해주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조선사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애들이 다 자라서 모두 공화국의 어엿한 해외공민으로 되였습니다.

올해 서른살나는 저의 둘째딸은 지금 산동대학 조선어학과에서 조선어를 배우고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른 애들도 모두 거기에서 공부시킬 작정입니다.

자식들에게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고 조국앞에 부끄럼없이 살도록 이끌어주는것이 우리 로세대 해외동포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산동성 제남시 리신자

동포들이 기다립니다

저는 21살 처녀시절부터 목단강시 해외공민조직에 망라되여 우리 동포들에게 조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일을 맡아해오고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며 처음 동포들앞에 나서던 일이 어제런듯 눈에 선한데 어느덧 20여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궂은날 마른날 가리지 않고 동포들이 사는곳을 찾아다니는 일은 두아이의 어머니인 저에게 있어서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시내에서 수십리씩 떨어져있는 사도령자촌이나 서춘향, 신한촌 같은 곳을 찾아갈 때면 온몸이 땀에 젖군합니다.

그때마다 동포들이 멀리에까지 마중나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저의 수고를 념려해줍니다.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음식들도 권하구요.

조국의 소식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동포들, 조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열을 올려가며 토론하는 동포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 때마다 피로는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영예감이 가슴가득 차오르군합니다.

오늘도 동포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남초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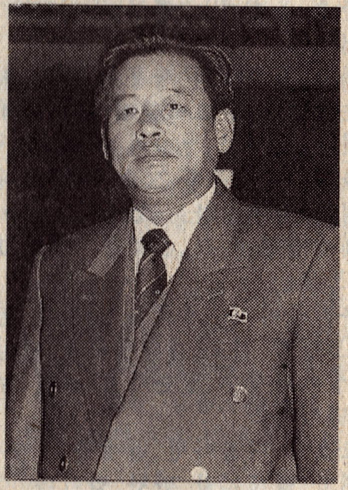
소원은 통일

우리 가족은 1950년 전쟁당시까지만 하여도 평양시 선교일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미군비행대의 맹폭격속에서 서로 갈라지게 되였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종적을 알길없는 아버지와 둘째형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중국 동북지방까지 흘러왔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와 둘째형은 그들대로 우리를 찾아다니다가 미군이 원자탄을 떨군다는 바람에 남쪽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철없던 시절에 저는 아버지를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해외와 남조선으로 갈라지게 된것은 결코 아버지의 탓이 아니였습니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단은 조선사람들모두에게 너무도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전쟁당시 아홉살 철부지였던 저도 이제는 귀밑머리가 희여져가고있습니다. 80고령에 이르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의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김영수

얼마전 우리는 평양곡산공장 공업시험소 소장으로 일하고있는 로력영웅 리건표를 만났다.

초면에는 백발이 인상적이였는데 얼마간 친숙해지고나니 젊은이들 못지 않게 사업에 대한 정열이 비상한것으로 깊은 여운을 주는 로학자였다.

우리가 찾아온 취지를 소개하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저야 인생의 소원을 성취한 사람이지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누구에게서나 쉽게 들을수 없는 그 짤막한 말속에는 그의 기나긴 한생이 의미있게 함축되여있는듯싶었다.

행 운

《나의 일생에서 잊을수 없는 충격적인 사변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선이 아니라 해외류학파견장을 받았을 때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리건표는 추억을 더듬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여름 어느날, 아직은 전선과 후방의 모든곳에서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던 엄숙한 시각에 건표는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외국류학을 가고있었다.

(이 준엄한 날에 내가 정말 외국류학을 간단 말인가?)

꿈과 현실

너무도 뜻밖에 들이닥친 행운이여서 그는 마음을 다잡을수 없었다.

비행기의 의자에 기대앉아 차창가너머 포연서린 조국의 대지를 굽어보는 건표의 눈가에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괴여올라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린시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포부는 《대학》이라는 모표가 붙은 사각모를 쓰는것이였다.

그의 부모들은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세방살이를 하면서, 장사밑천까지 다 털어바치면서 대학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어차피 거쳐야 하는 중앙중학교입학을 성사시켜주었다.

간난신고끝에 입학한 중학교였으나 승인없이 아무책이나 마음대로 볼수 없고 때없이 교실을 떠나 군용도로, 군용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여야 하는것이 식민지청년학생들의 운명이였다.

해방은 되였으나 일제대신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땅에서 그의 희망과 포부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건표는 민족의 넋이 무참히 짓밟히는 이런 현실에서 참된 배움의 길, 포부의 실현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통절히 느꼈다.

그는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투쟁대오에 합세하였다. 그것으로 하여 그는 감옥살이를 면할수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시 그는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있었다.

6.28서울해방과 함께 옥살이에서 벗어난 그는 인민유격부대에 입대하였다.

길지 않은 인생체험의 나날을 통하여 진정한 내 나라가 있어야 삶도 희망도 참답게 꽃필수 있다는것을 절감한 그는 의롭고 성스러운 길에 청춘을 바칠 결심을 굳히였던것이다.

그 대오에서 용감히 싸우던중 그는 그만 병으로 후방에 이송되였다.

병이 완쾌되자 그는 곧 해당기관을 찾아가 다시금 전연구분대에 내보내줄것을 간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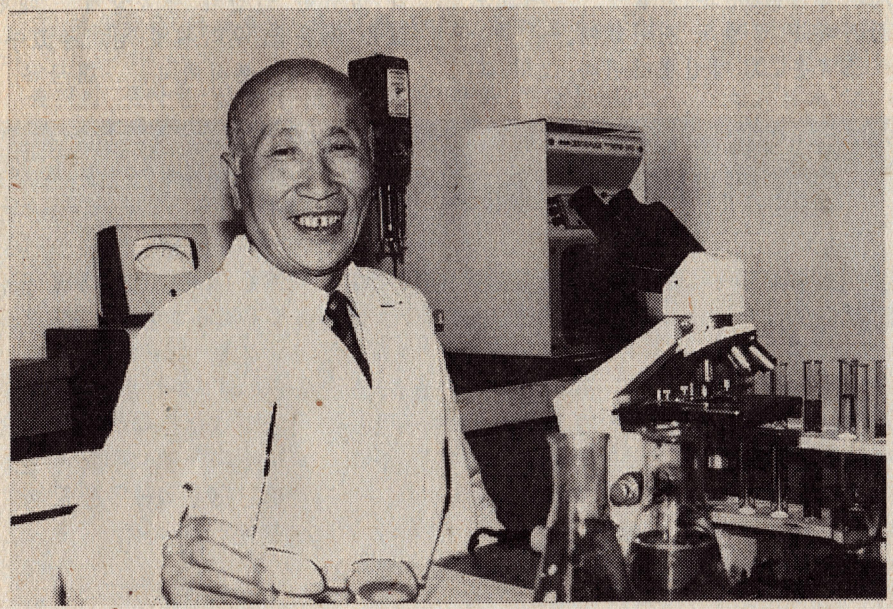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받아안은 것은 한 구라파나라 대학에 가서 공부하라는 류학파견장이였던것이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꿈같은 일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였다.

얼마후에야 그는 이 사연에 담긴 깊은 의미를 가슴뜨겁게 감수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전화의 어려운 나날이였지만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환히 내다보시고 민족간부후비양성을 위하여 전선의 전사들을 소환하여 외국에 류학을 보내는 조치를 취하시였던것이다.



보 답

리건표가 6년간의 류학을 마치고 그립던 조국에 돌아왔을 때였다.

조국인민들은 전승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복구건설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리고있었다.

그의 가슴은 이 벅찬 현실에 마음껏 뛰여들어 조국의 배려에 보답할 일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하라는 권고를 마다하고 평양곡산공장으로 갔다.

조국을 위해 못다바친 피끓는 청춘의 정열, 지혜, 기술을 실지 현장에서 깡그리 바쳐가고싶었다.

1920년대에 지은 락후한 기술상태에 전쟁의 피해까지 겹친 공장을 현대적수준으로 갱신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그는 조국의 아들로서의 응당한 도리로, 의무로 생각하였다.

그는 먼저 공장의 강냉이가공공정을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새롭게 개조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아직은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그에게 있어서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이 연구사업은 간난신고를 동반하였다.

하지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의 열쇠를 얻어쥐는 그 과정은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힘과 지혜를 키워나가고 생의 진정한 보람과 희열을 맛보게 하는 의의깊은 나날이였다.

공장에서는 그가 목표로 정한 연구사업을 귀중히 여기며 로동자, 기능공, 기사들로 구성된 기술협의조를 무어주고 어렵고 힘든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집체적 지혜와 열정으로 도와주었다.

마침내 그의 첫 기술개조안이 성공에 접했을 때 그는 행복감에 취하여 그만 눈물을 흘리고말았다.

(나도 이제는 조국이 안겨준 사랑에 보답을 할수 있단말인가?!)

이렇게 입속으로 되뇌이는 그의 가슴속에는 성공에 대한 기쁨과 함께 보다 높은 목표에 대한 신심과 희망이 벅차올랐다.

건표는 지방의 곳곳에 꾸려진 곡산공장들에도 모두 이 현대적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강냉이가 가공공정을 거쳐 맛좋고 영양가높은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이 되여 쏟아지는것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볼 때마다 건표는 풍성해지는 인민생활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결의를 가다듬군하였다.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그의 사업은 언제나 크고작은 기술혁신과 새로운 발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흘러간 그의 삶은 공장과 더불어 근 40년이라는 세월의 년륜을 새기였다.

삶의 터전

조국에서는 그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귀중히 여기며 커다란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돌려주었다.

그 나날에 건표는 수많은 국가수훈을 받았으며 전국공업열성자대회에 참가하여 로력영웅칭호를 받는 영예도 간직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공로를 평가하시여 표창장을 수여해주시였다.

그는 전국영웅대회와 조선지식인대회를 비롯한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도 지니였다.

조국은 그 자신뿐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대학의 넓은 문을 활짝 열어주어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게 해주었다.

그의 가정에는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시 중구역인민병원 기술부원장으로 일하는 안해와 같은 대학을 나오고 진료소의사로 일하는 딸,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미술창작사 창작가로 일하는 아들, 평양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설계사업소 설계원으로 근무하고있는 딸이 있다.

또한 그의 가족, 친척들과 처켠의 친척들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명이나 되는데 그중 40여명이 대학졸업생이거나 대학재학생들이다.

진정 어머니조국은 재능의 싹을 발견했을 때에는 배움의 길로 떠밀어보내주고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저 애쓸 때에는 걸음걸음 손잡아이끌며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성공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공로라고 하면서 내세워주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고 따뜻이 품어주는 은혜로운 품이였다.

《아마도 남조선의 고향땅에서 작별한 아버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저의 가정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꿈같은 얘기라고 할것입니다. 참으로 공화국의 품이야말로 그 누구든 가슴에 품은 소원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진정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 인생의 소원을 성취한 인간의 행복상에 대한 깊은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본사기자 채금옥

상식

일사병과 그 예방

일사병은 해빛이 직접 머리에 내려쪼일 때 뇌막과 뇌에 대한 적외선과 자외선의 지나친 자극으로 하여 생긴다.

이 병은 무더운 날 몸이 쇠약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생긴다.

증상은 심한 땀나기와 머리아픔, 머리의 타는듯한 열감과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졸음, 하품, 어지러움, 메스꺼움, 숨가쁨이 나타난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등도 있다. 더 지나면 땀이 안나면서 피부가 마르고 체온이 높아진다. 얼굴은 새하얗게, 눈은 벌겋게 되고 어지럼증, 게우기, 숨가쁨 등의 증상이 심해지며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없이 넘어지기도 한다.

이 병을 막으려면 무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해빛이 머리에 직접 쪼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병은 땀을 많이 흘려 체액이 줄거나 몸안의 열조절이 잘 안되는것과도 중요하게 관계되므로 그 예방을 위해서는 물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물은 소금이나 간장 등 간이 약간 있는것이 좋다.

심장병환자나 늙은이, 몸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이 병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사병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환자를 빨리 그늘진 서늘한곳으로 옮겨놓고 안정시키며 웃옷을 벗기고 머리와 심장부위에 찬물찜질을 하며 온몸을 찬물로 닦아주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찬 단물이나 찬 꿀물을 마시게 한다. 머리와 웃몸을 높인 자세에서 안정시킨다. 심할 때에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인민의 지도자

어머니품

량강도의 어느 한 지방에서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촬영하고있을 때였다.

연출가가 한 녀배우를 급히 찾더니 이제 곧 출발준비를 갖추고 평양으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녀배우는 놀랐다.

《제가 맡은 역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말고 어서 떠나오. 방금 지급전화가 왔는데 촬영소에서 동무를 급히 부르오. 아마 창작문제를 가지고 토론할게 있는 모양이요.》

그가 탄 렬차는 천여리길을 달려 평양에 도착하였다.

촬영소의 한 방에 들어섰을 때 책임일군은 그를 보자 곧 탁아소부터 갔다오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작문제를 토론한다고 하였는데 탁아소엘 갔다온다는것은 무슨 일인가?

(우리 애가 몸이 좀 어떻다더니…)

그의 불안한 마음을 싣고 승용차는 쏜살같이 내달리였다.

탁아소입구에는 문화예술부의 책임일군이 딸애를 안고서서 빙그레 웃고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엄마를 보자 딸애는 좋아라고 손벽을 쳤다.

《엄마, 왜 인제야 왔나?》

《응, 보고싶던?》

《체, 엄만 몰라. 나 머리 아팠댔어.》

《오, 그랬댔니?》

《체, 엄만 정말 몰라. 나 아프댔는데 이 아저씨랑 계속 와서 약을 먹여주었어.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약이래. 인젠 거의 다 나았대. 아프지 않아. 엄만 그것두 모르지…》

그 다음말은 녀배우의 귀에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높뛰기 시작한 심장의 고동소리만 쾅쾅 가슴을 두드리며 울려올뿐이였다. 눈앞이 일시에 뽀얗게 흐려지였다.

《그런데 엄만 어떻게 알구 왔나? 누가 대주던?》

딸애의 이 물음에 책임일군이 나서서 너의 엄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네가 엄마를 보고싶어한다고해서 보내주셨다고 대신 대답해주었다.

때늦게 영문을 알아차린 녀배우는 왜 인제야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가고 하면서 어깨를 들먹이였다.

《나를 원망하지 마오. 나는 동무에게 사실대로 말해줄수 없었소.》

책임일군의 목메인 소리가 조용히 울리였다.

《어제 촬영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오셨댔소.…》

그이께서는 창작단성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그들의 건강상태와 가정생활상 문제들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촬영현지에 나간 한 녀배우의 어린애가 앓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동무들은 방금전까지 모든 일이 잘되는것처럼 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일군들을 책망하시였다.

어린애가 무슨 병을 앓고있는가, 치료는 어떻게 하였는가… 다심하신 어조로 하나하나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군들과 함께 어린애의 치료대책을 일일이 세워나가시였다.

시간이 흘러 구체적인 치료방도가 세워졌으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계시였다.

그러시더니 **《촬영현지에 급히 전화를 걸어서 어린애어머니를 부르는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일군들은 얼른 대답을 못하였다. 하루를 한달맞잡이로 바쁜 창작전투를 벌리고있는 때에 그를 부르면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이였다.

《…동무들은 어머니심정을 모릅니다. 어린애가 앓고있는데 그것을 알고서야 그 배우가 어떻게 촬영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고충이 없어야 영화창작도 잘할수 있습니다.

그 동무를 곧 부릅시다.

어머니에게서 가장 귀한것이 자기 자식인것처럼 아이들 역시 한순간도 못잊어 그리는것이 바로 자기 어머니입니다. 앓는 어린애에게서 자기 어머니의 손길보다 더 특효약은 없을것입니다.》

마디마디 가슴을 치는 고귀한 말씀에 일군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군들은 곧 촬영현지에 지급전화를 걸어 그 배우를 부르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무슨 리유를 가지고 부르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사실그대로 알려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야 그 동무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다 준비된 동무들인데…

그저 창작문제라고 하면서 급히 오라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책임일군의 이야기는 끝났다.

격정에 잠긴 녀배우는 딸애의 볼에 자기의 볼을 비비며 마음속으로 목메여 부르짖었다.

(너도나도 다 함께 안겨사는 끝없이 고마운 어머니품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란다!)



김형직선생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봉화혁명사적지

봉화혁명사적지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90여리 떨어져있는 강동군 봉화리(1910년대 당시는 강동군 고읍면 동삼리 내동부락)에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시기 위하여 1916년 봄에 만경대에서 봉화리로 자리를 옮기신 이후 1917년 가을까지 이곳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이곳 혁명사적지에는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으시고 한손에 책을 드신 선생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다.

1968년에 모신 선생님의 동상은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 열렬히 싸우신 선생님의 숭엄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비석산등성이에는 김형직선생님의 서거 마흔돐에 즈음하여 세운 혁명사적비가 있고, 봉화산에서 뻗어내린 낮은 언덕 산기슭에는 흙벽에 돌기와를 올린 《ㄱ》자형으로 된 명신학교가 있다.

명신학교는 선생님께서 1916년 봄부터 1917년 가을까지 교편을 잡으시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지원》의 위대한 사상으로 교양하시던 유서깊은 혁명의 집이다. 여기에는 해방되고 독립된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신 선생님의 원대한 뜻을 말해주는 《지원》(志遠)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으며 선생님의 정력적인 교육활동을 생동하게 말하여주는 흑판, 교탁, 종 등 교구비품들이 놓여있다.

명신학교뒤에는 선생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던 살림집이 있다.

수수한 샃을 깐 살림집방안에는 키낮은 책상이 있고 부엌에는 강반석녀사(선생님의 부인)의 고매한 품성과 알뜰한 살림살이모습을 보여주는 부엌살림도구들이 놓여있다.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집에서 조선국민회의 활동방침을 구상하시였고 동지들과 같이 그 실현방도를 토의하시였으며 국내외 각지에서 찾아오는 조선국민회 공작원들의 사업보고를 들으시고 새로운 과업을 주시군하시였다. 이 살림집 굴뚝쪽의 돌기와밑에는 비밀문건을 보관해두었던곳이 있다.

살림집뒤 산기슭에는 **김일성**주석께서 6살 어리신 나이에 《말바위》에 오르시여 자주 군사놀이를 하시면서 장차 일제를 물리칠 장수힘을 키우신 군사놀이터가 있다.

그리고 명신학교앞에는 한구석에 철봉대가 있는 자그마한 운동장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며 그들에게 단결력과 강의한 의지를 키워주기 위하여 줄당기기, 말타기, 뛰기내기, 씨름 등을 조직하시였으며 조선국민회 회원들의 합법적인 회합을 위하여 학생들의 운동회를 조직하시였다.

거기서 조금 앞으로 나가면 강반석녀사께서 알뜰히 거두신 정갈한 박우물이 있다.

봉화산마루로 약 100메터 치달아오르면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각곳에서 찾아오는 반일애국투사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투쟁방도를 의논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어 파견하시던 비밀회합장소 바위터가 있다.

봉화혁명사적지에는 또한 선생님께서 만경대에서 가족들을 데려오시기전까지 계시던 초가집, 선생님께서 봉화리에 오신 초기 몇달동안 계시던 돌기와집, 아침마다 오르시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시키신 아침운동터, 선생님의 근로정신과 정성이 깃들어있는 배나무—추향리, 마을농민들을 교양하시던 모임터의 들메나무가 있다.

그리고 비석산기슭에는 선생님께서 이곳을 떠나신지 10년후인 1928년에 《비석계》계원들이 그이의 공적과 애국적활동을 길이 전하기 위해 세운 두개의 돌비석이 있다.

사적지에는 또한 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그이의 높으신 뜻을 이 땅우에 영원히 꽃피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정중히 꾸린 봉화혁명사적관이 있다.

오늘 봉화혁명사적지에는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혁명적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그칠사이없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봉화혁명사적지 전경



비밀문건을 보관하였던곳(지붕)



김형직선생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던 집



강반석어머님께서 사용하시던 농쟁기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조선국민회 회원들과 자주 비밀회의를 가지시였고 먼곳에서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여 사업과 실정을 료해하시고 승리의 신심과 새로운 과업을 주어 떠나보내시였다.





명신학교



맥전나루터



개성시 (2)



개성학생소년궁전



옛풍습을 보여주는 주택들의 이모저모



개성의 녀인들 초물구럭을 만들고 있는





통일관



개성예술극장



고려성균관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있다.



남대문거리의 일부

본사기자 김휘률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으로 하여 령락되였던 개성시 인민들의 생활은 공화국의 품에 안긴후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3년간의 전쟁시기 그 어느 지역보다 피해를 많이 입은 이 지구 인민들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전후시기부터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였다.

1957년 8월, 삼복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성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자남산에 오르시여 시의 건설방향을 명시해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거리형성과 건물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주석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시의 북부지역에 조선식기와집보존거리가 알뜰히 꾸려지고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장, 기업소들이 조화롭게 건설되였으며 새로운 거리들이 일떠섰다.

또한 해방전에 초가집과 판자집밖에 없던 장풍, 개풍, 판문을 비롯한 개성시안의 군소재지들이 새롭게 일떠서고 군마다 지방산업공장들과 각급 학교, 문화회관, 도서관, 방송시설 그리고 편의봉사 및 후생 시설들이 그쯘하게 건설되였다. 군소재지는 물론 판문군의 평화리, 장풍군의 대덕산리를 비롯한 시안의 모든 농촌리들에 문화주택들이 일떠섰다.

해방전에는 중학교와 전문학교가 모두 7개밖에 없어 배울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의 65%가 학교문앞에도 가볼수 없었던 개성시는 오늘 조밀한 학교망으로 뒤덮였으며 학생수는 시인구의 4분의 1이상에 달하고있다.

오늘 시에는 종합대학인 고려성균관과 의료일군을 키우는 안영애대학, 교육일군을 양성하는 송도대학, 개성예술대학, 공산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이 있어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자체로 길러내는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백수십개의 보통교육부문의 각급 학교들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누구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받고있다.

시의 중심부인 복안동의 높은 언덕에는 개성학생소년궁전이 자리잡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56년 그토록 어려운 전후시기에 평양과 함께 이곳에도 학생소년궁전을 지어주자고 하시면서 그것을 내각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고색짙은 옛도시의 풍치에 어울리게 조선식의 민족적전통을 살려 하늘을 치받드는듯 합각지붕을 이고 3층건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이곳 학생소년궁전에는 750석의 극장과 도서관 그리고 물리, 화학, 라지오, 전자공학, 자동차, 뜨락또르, 공작기계, 체육, 예술 등 한부문의 기술을 전공하는 30여개의 소조와 보다 짧은 기간에 일반지식을 배워주는 60여개의 소조가 운영되고있다. 여기서는 하루에도 3천여명의 학생소년들이 다양한 과외활동을 벌리면서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로 자라나고있다.

시에서는 우리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난 기간 연극《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 《분계선마을에서》, 《꽃은 계속 핀다》를 비롯한 인민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공연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대중적인 문학, 예술소조활동을 활기있게 벌리고있다.

집집마다 신문, 잡지 등 출판물들이 들어가고 유선방송화, 텔레비존화가 실현되였으며 특히 이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성텔레비존방송체계의 운영은 이곳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훌륭히 담보해주고있다.

또한 시에는 손색없는 의료설비를 갖춘 시인민병원, 68개의 각급병원들과 40여개의 진료소가 있고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모든 주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위생방역기관들이 잘 꾸려져 온갖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자취를 감춘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개성시에서는 이곳 특산인 모시 그리고 특식인 추어탕과 설렁탕, 보쌈김치 및 개성상밥, 신선로, 약과, 약밥 등이 유명하다.

시의 서북쪽 대흥산에는 경치좋기로 이름난 박연폭포가 있다. 여기에는 휴양소와 려관, 식당, 상점 등 편의봉사시설들이 있어 근로자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시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20리 떨어진 판문군 평화리에 세상사람들이 다 잘 아는 판문점이 있다.

제국주의침략의 원흉으로 수백년동안 저들의 강대성과 불패성에 습관되여온 오만한 미제는 15개 추종국가 군대와 남조선괴뢰군까지 동원하여 이 땅에서 3년나마 인류사상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강행하다가 1953년 7월 27일, 이곳 판문점에서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패배의 쓰거운 도장을 찍었다. 여기 판문점에는 당시 정전담판회담장소와 정전협정조인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판문점에서는 남조선괴뢰들이 군사분계선의 그 저주로운 철조망도 성차지 않아 북과 남을 두동강내면서 구축한 콩크리트장벽이 바라보인다. 이 콩크리트장벽은 북과 남의 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 세계면전에서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세계의 수많은 각계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이곳 판문점을 참관하고 콩크리트장벽을 바라보고서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어언 반세기가까이 겪고있는 참혹한 민족분렬의 비극을 만천하에 절규하면서 하루빨리 조선이 통일되기를 기원하고있다.

본사기자 권오식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6)

앞에서는 지도가 인민대중을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을 학습하였다.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 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뭉쳐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면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혁명운동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그러면 수령은 혁명운동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령도자이다. 이것이 바로 수령의 지위라고 할수 있다.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라는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수령이 인간유기체의 뇌수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말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기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는것은 뇌수이다. 사람은 뇌수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배가 고픈것을 느끼고 음식을 먹기도 하며 길을 걸을 때 다리가 아픈것을 느끼고 쉬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활동을 조절통제하는것은 수령이다.

그러면 수령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뭉칠 때 진정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자면 반드시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단결의 중심은 수령만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란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인민대중의 이러한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의 최고대표자는 다름아닌 수령이기때문이다.

수령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령도자라는것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없을것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따라서 세련된 령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탁월한 령도력을 가진 수령만이 할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러한 수령이 될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수령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고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정확한 길을 밝혀낼수 있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진 탁월한 령도자만이 될수 있다.

그러면 혁명운동에서 수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령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므로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으면 혁명투쟁의 방향과 방도를 알수 없고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없다.

수령은 인민대중이 쌓은 풍부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여 거기로부터 시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력사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사상정신적량식을 마련한다.

수령은 또한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그들을 혁명의 주인으로,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든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이 되자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야 하며 또한 조직화되여야 한다. 혁명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놀지 못한다.

그런데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을 반영한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조직을 창건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일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실현된다.

수령은 또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세련된 령도로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끈다.

혁명의 앞길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게 되며 복잡한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된다. 때문에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자면 혁명투쟁의 전과정에 대한 세련된 령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령도는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최고령도자인 수령만이 할수 있다. 수령은 혁명투쟁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정확한 투쟁구호와 투쟁방침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그 실현에로 현명하게 이끈다.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바로 수령의 이러한 혁명적역할에 의하여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군인들의 기상이 넘치는 무대

최근 조선인민군협주단 예술인들은 2.8문화회관 6000석극장 무대를 새로운 음악무용종합공연으로 장식하였다.

공연에서 이들은 군대예술단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고 종목들의 사상예술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 기백과 랑만에 넘친 선률, 률동 =

무대의 첫 막이 오르면 관현악과 합창 《백두의 말발굽소리》가 시작된다.

광란하는 백두의 눈보라소리, 천고의 밀림을 뒤흔드는 말발굽소리, 힘있는 피아노와 관현악의 장쾌한 선률, 장엄하고 위풍있는 남성합창…

눈보라헤쳐 폭풍을 헤쳐
천리준마 달리여간다
백두광야의 말발굽소리
혁명의 룡마 달리여간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
붉은 기발을 휘날려간다

터져나오는 이 대합창속에 무대배경에는 백두산이 솟아오르고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며 백마에 오르신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담대하신 영상이 모셔진다.

무대는 바뀌여 무용 《백두산고향집을 찾아서》의 장면도 펼쳐지고 언제나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사는 병사들의 끝없는 행복을 노래한 《경애하는 그이품에 안긴 이 행복》이 녀성중창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울리기도 한다.

인민군전사들의 랑만과 신심에 넘친 생활을 경쾌한 음악과 발랄한 춤동작, 실지 말을 타고 달리는듯한 생동한 률동으로 형상한 무용 《가마마차 달린다》도, 행군길의 휴식참에 중대장은 전사를 먼저 생각하고 전사는 지휘관을 위하는 마음을 담은 혼성2중창 《행군길에 꽃피는 관병의 사랑》도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 2중창, 무용, 녀성민요독창과 합창, 남성독창, 노래와 춤 등으로 다채롭게 엮어진 공연종목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선률과 률동, 무대미술이 조화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병사들의 슬기와 용맹, 혁명적기상, 아름다운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노래와 무용들은 모두 힘이 있고 박력이 있다.

오늘 우리 병사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이 자리잡고있다. 병사들은 무장으로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고 무장으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위업을 빛내여갈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무대에 오른 노래와 춤들은 병사들의 이런 숭고한 정신세계와 생활을 그대로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공연은 내용에서뿐아니라 형식에서도 위풍있고 장엄한 자기 고유의 틀을 잘 살리였으며 무대미술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맞게 다양하게 립체적으로 펼쳐지고있다.

=인기있는 출연자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빛나라 **정일**봉》 등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이 여러번 오른다.

남성합창은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다.

120명으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은 우렁차고도 조화롭고 매력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른다.

합창단에서는 지난 기간 50여명의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이 배출되였다.

송가적인 노래와 혁명적인 노래들, 군가형식의 기백있고 전투적인 노래들은 물론 민요풍의 노래들도 품위있게 형상하여 호평을 받고있는 남성합창단은 《공훈남성합창단》의 명예칭호를 수여받았다. 협주단의 종합공연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에서 노래부르던 로배우로부터 새 세대 배우들에 이르기까지의 로, 중, 청 배합이 잘되여 이채를 띠였다. 40여년의 협주단배우생활경력을 가지고있는 인민배우이며 국제콩클수상자인 최창림은 독창 《위훈은 어디서 꽃피는가》를 불러 절찬을 받고있다. 올해 나이 60살인 그는 250여곡의 독창, 합창의 선창에 출

(31 페지에 계속)

가 풍

우리 앞에는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인 한 로병이 수십년동안 써오는 한권의 《수기장》이 놓여있다.

수기에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1동에 사는 김응교가 자기 가문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무엇을 가풍으로 내세우고있는가 하는것이 상세히 적혀있다.

《수기장》속표지에는 붉은 오각별과 전민이 총을 메고 조국보위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붙어있다.

수기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의 아버지 김지창은 어렸을 때부터 청진에서 부두로동자로 일했었다. 아버지는 20대 젊은 나이때부터 반일감정이 강했으며 민족적멸시와 짓밟힌 존엄으로 하여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있었다.

아버지는 1931년 5.1절시위와 청진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을 조직지도한 조직자의 한사람이였으며 조국광복의 뜻을 품고 반일투쟁에 나서서 용감히 싸우다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30살에 세상을 떠났다.》

응교의 아버지는 조국을 잃으니 제 나라 말과 이름까지 빼앗기고 상가집개만도 못한 천대를 받고있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한목숨 바쳐서라도 조국을 찾아야 한다고 어린 응교의 가슴속에 애국의 넋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기 한가정의 행복보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로조와 반일적인 청년조직에 망라되여 로동자들에게 반일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는 연설도 하고 파업도 선동하면서 혁명투쟁을 벌리였다.

수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이런 가정에서 해방을 맞이한 나는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싸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국을 지킬 결심을 품고 1948년 5월 조국보위대렬에 들어섰다.》

수기에는 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후방에 침투하여 날뛰는 적간첩놈들의 소굴에 들어가 놈들을 일망타진한 내용이 적혀있다.

수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1952년 9월, 우리 부대에 조선서해 몽금포 해상에 적들이 기여들지 못하게 기뢰를 부설할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였다. 기뢰부설을 한창 진행하던 어느날 적함선들이 우리 배를 발견하고 집중적인 포사격을 해왔다. 바다는 삽시에 불바다로 변하였다. 전투는 치렬해졌다. 기뢰를 실은 배가 함포탄을 맞는 날에는 임무를 수행할수 없다. 해병들은 기뢰를 안고 물에 뛰여들면서 웨쳤다. 〈동무들, 조국을 부탁한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전투원들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우리 뒤에는 정든 고향땅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다! 원쑤들에게 바다를 내여주지 말라!〉

전투원들의 피타는 목소리, 기뢰와 함께 바다에 뛰여드는 전우들의 마지막웨침소리가 아직도 나의 귀전에 울리고있다.》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멸적의 기세가 그대로 안겨오는 글이다.

전쟁은 끝났으나 그의 수기는 계속되고있다.

1962년 12월 23일, 적간첩선이 해주앞바다에 침입하였다. 그곳을 지키고있던 우리 해군함정과의 격전끝에 적간첩선이 불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적들은 함선수를 더 늘여 침입해왔다. 이 통보를 받은 응교는 급히 함정들을 끌고 격전장으로 출동하였다. 적들은 비행기까지 끌고와 날치였다. 우리 해병들은 적기가 덤벼들면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날 적들은 간첩선 한척을 잃고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43년간에 걸치는 그의 군사복무는 이처럼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끊임없는 격전으로 이어졌다.

수기장에는 대좌견장에 훈장을 가득 달고 자랑스레 미소를 띄우고 찍은 그의 사진도 붙어있다.

응교에게는 아들딸 여섯남매가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할아버지는 조국이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걸 실지 체험으로 깨달았기때문에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잘 알고 온 가족이 다 손에 총을 잡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그이기에 응교는 아들 넷과 딸 둘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다.

맏아들이 바로 자기가 지켜서있던 최전연 바다에서 근무하게 되였을 때 응교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래 응교는 일부러 맏아들이 있는 부대에 찾아갔다. 아들이 탄 배에 올라 그곳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감회는 깊었다. 그전날 적함선들과 대결하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올라 새삼스레 멸적의 의욕이 끓어올랐다. 조국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우리 가족은 이 초소를 철벽으로 지킬것이다.

《광이야, 여기가 바로 아버지가 지키던 바다다. 싸움도 많이 했고 피도 많이 흘렸다. 우리가 목숨으로 지킨 조국의 바다라는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후 몇해가 지나 응교는 함의 포수가 된 맏아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자, 네가 얼마나 준비되였는가 한번 보자. 포탄 한발에 적함 한척씩 요정낼수 있느냐?》

아들은 기민하게 포를 조종하고 사격태세를 취해보이였다.

《음, 됐다. 훈련을 많이 했구나. 언제나 원쑤가 눈앞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훈련에 전력해야 한다!》

응교는 해군에서 근무하고있는 둘째아들이 타고있는 함선에도 들리였다. 그는 둘째아들의 훈련동작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그만하면 어떤 적함도 함부로 덤벼들수 없겠구나.》

해병으로 억세게 자란 둘째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수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이 땅에 원쑤들이 있는 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전에는 군복을 벗을수 없음을 자각했고 자식들도 계급의 무기를 잡게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아들 넷만이 아니라 딸들까지 모두 군복을 입게 하였다. 오늘 귀여운 막내딸까지 군복을 입히고 보니 생각이 깊어진다. 소원대로 여섯자식을 다 인민군대에 입대시켰기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기원하였다. 〈너희들은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바친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 손에 총을 잡고 싸운 아버지처럼 오늘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서의 높은 영예와 본분을 자각하고 조국의 초소를 튼튼히 지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철석같은 의지밑에 전세대가 후세대에게 부탁하는 열렬한 호소였다.

수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있다.

《비록 내 나이가 들어 퇴역으로 넘었으나 나는 조국앞에 또다시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면 자식들과 함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옹위하는 총포탄이 되리라.》

본사기자

민족의 얼을 지켜가는 동포

온갖 잡생각을 쫓아내고 깨끗한 사색만 이어주는 조용한 서재에서 잡지 《금수강산》을 펼쳐들고 독서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사람, 만시름을 잊고 오직 시야에 안겨오는 글줄을 따라 심장속에 고결한 뜻을 세워가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 조선족실험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민족의 얼을 지켜가기 위한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있는 김동식동포이다.

그는 본사편집부앞으로 보내온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매달 어김없이 꼭꼭 보내주는 잡지 〈금수강산〉을 받아볼 때마다 나는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언제나 고국의 따사로운 품,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과 온기를 느끼군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마음은 고국에로 달리고 혈육의 정은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세계의 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견결히 고수하고있으니 저는 민족의 그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성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칠 결심입니다.》



김동식동포는 잡지《금수강산》의 애독자이다

이것이 어찌 김동식동포의 심정이라고만 하겠는가. 지난날 쓰라린 비애를 가슴에 안고 정든 고향, 고국땅을 떠나 이역만리 해외에로 흘어져간 동포들과 그 후손들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그래서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보아도 향수에 잠기게 되고 하늘중천 두둥실 솟아오른 둥근달을 보아도 박꽃 하얗게 피는 고국을 그리며 눈물짓는다는것이 아니겠는가.

중국의 김동식동포도 그러한 심정을 지니고 잡지 《금수강산》을 생활의 길동무로 삼고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것이다.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의 전통을 가르쳐주고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의 얼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그의 노력은 얼마나 값진것인가.

독서에 열중하는 동포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대나무처럼 곧고 소나무처럼 억세게 살려는 그의 속마음을 력력히 읽을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생활은 아름답다

평양종합방직공장 서성타올분공장에서 일하던 김미영(25살)과 황명순(24살)은 지난해 3월 자진하여 황해남도 재령군 봉천협동농장에 진출하였다.

아래에 김미영이 쓴 일기의 일부를 소개한다.

× × ×

—1993년 3월 6일

명멸하는 불빛이 수도의 자태를 드러내보인다. 언제봐도 유정한 평양의 밤거리이다. 수많은 위훈의 사연을 속삭이며 이 밤도 깊어간다.

오늘아침 공장에서는 농촌으로 가는 명순이와 나를 환송하는 모임이 있었다. 모두가 우리의 리상과 포부를 지지해주었고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물론 결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길을 앞서 걸은 무수한 청년들의 소행이 우리를 고무해주었다. 늘 쌍둥이처럼 붙어다니며 마음을 맞추던 나와 명순이였지만 농촌탄원을 함께 결심했을 때에는 친동기처럼 되여버렸다. 우리는 재령군 봉천리로 가자고 약속했다. 아는 사람도, 친척도 없는곳이다. 다만 1월에 그곳에 있는 친척집을 다녀온 공무작업반의 한 동무로부터 농장에 로력이 긴장하다는 말을 들었을따름이다.

문득 며칠전에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른다. 《한그람도 안되는 실오리를 다루던 네가 꽤 농사일을 해내겠는지 걱정이로구나.》 하지만 반대는 안하셨다. 어머니도 시대의 맨 앞장에 서보고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리해하신 모양이였다.

잘 있으라 정든 수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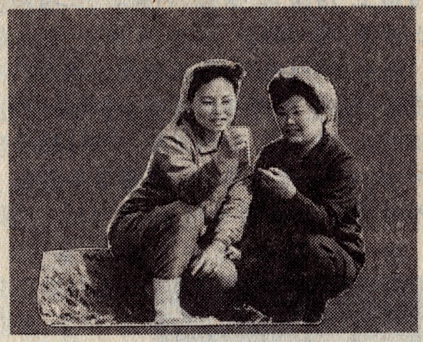
발목이 시도록 이 밤을 걷고만싶어진다.

—1993년 3월 10일

드디여 목적지인 봉천리에 도착했다.

볕에 타 검실검실해진 얼굴들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었다. 농장사람들이 다 떨쳐나온듯싶었다.

《잘 왔소. 평양처녀들! 함께 일해보자구.》



농장의 주인된 처녀들

리당비서가 서글서글하게 말하며 우리의 손을 감싸쥐였다. 애들은 평양아지미들의 얼굴을 본다며 어른들의 틈사이를 부지런히 비집었다.

우리의 숙소는 기계화반에서 일하는 리용문아저씨네 집으로 정해졌다. 그의 안해인 복순아주머니가 산뜻하게 꾸려놓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처녀들의 마음에 들겠는지… 이제부터 나를 친어머니로 생각하라구.》 아주머니는 우리가 기특하다며 등을 두드려주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음식꾸레미를 들고 찾아왔다. 대지처럼 소박하면서도 웅심깊고 인정많은 사람들이였다. 관리위원장은 우리가 4작업반 2분조에 배치되였다고 했다.

밤에 우리는 마을앞벌로 나갔다. 이제는 우리도 이 벌의 주인이 된 셈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할수 있을가?》 명순이는 자못 걱정스러운 모양이였다.

《이악하게 일하면 되겠지뭐.》 대답은 쉽게 했지만 나역시 마음은 무거웠다.

—1993년 5월 7일

어제부터 벼모내기가 시작되였다.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 모두가 분주히 뛰고있었다.

나와 명순이는 모내는 기계를 탔다.

운전대를 잡은 최아저씨는 몹시도 흥겨운 기분이였다. 과묵한 성미인 그의 입에서는 코노래까지 흘러나왔다. 《청제비 쌍쌍 춤추는 봄날에…》 우리는 마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논물을 보던 현백동무가 우리에게 방금 기계가 지나온 논판을 가리켰다. 어쩌나, 빈포기가 많았다. 이야기바람에 모공급을 설친 모양이였다.

저녁작업총화때 현백동무가 일어나 우리를 비판했다. 《동무들에게는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합니다.》

그럼 뭐 우린 손님이란 말인가. 그의 말이 고까왔으나 저절로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봉천천에서 손을 씻고있는데 리사로청위원장 양찬원동무가 찾아와 말했다. 《가서 저녁식사나 함께 하자구.》

따라가보니 뜻밖에도 현백동무의 집이였다.

부엌에서 그의 어머니가 마주나오며 반색을 했다. 《우리 애 말이 오늘이 미영이 생일이라더군.》 언제봐야 나에게 각별히 왼심을 써오는 어머니였다. 현백동무와 눈길이 마주치자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버렸다.

—1993년 8월 28일

오늘은 청년절이다. 리내 청년들이 모두 모여 떠들썩하게 하루를 즐기였다. 알고보니 청년들속에는 별의별 재간둥이들이 다 있었다. 시인, 웅변가, 손풍금수, 북쟁이…

웅변모임에서는 3작업반의 리동무가 대인기였다.

원고도 보지 않고 주먹을 흔들며 웨쳐댔다. 《청춘, 이것의 동반자는 향유가 아니라 창조이다!》 모두가 환성을 올리며 박수를 쳤다.

나와 명순이는 서사시 《백두산》을 한대목씩 랑송하였다.

저녁때 구락부에서는 무도회가 열렸다. 대형록음기는 연방 경쾌한 선률을 뽑아냈다. 명순이는 어느새 우리 분조의 원섭동무와 짝을 무어 돌아가고있었다. 이들의 남다른 사이를 눈치챈지는 오랬다. 나의 상대는 현백동무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묵묵히 돌아가기만 했다. 어색한 침묵끝에 그가 먼저 말을 뗐다. 《래일부터 일이 끝나면 기계화반으로 오라구. 분조청년들이 탈곡기개조를 맡아하기로 했어.》 그 다음은 말이 없다.

에이 뚝쟁이! 그는 남달리 고향을 사랑한다. 정열있고 성실하고… 지난 김매기철에 나더러 《철새》가 아닌가고 물었다가 퉁을 맞은 다음부터 우리 사이는 《랭랭》하기만 하다.

달이 청룡산마루에서 두뼘기장이나 떠올랐을 때에야 명순이가 숙소로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우린 약속했어. 원섭동문 정말 좋은 동무야.》

활달하고 매사에 결단성이 있는 명순이가 부러웠다.

—1993년 11월 10일

결산분배의 날이 왔다. 올해에도 국가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기쁨이 산같은 낟알낟가리에 함뿍 실렸다.

보고에서는 우리들의 이름도 지적되였다. 도시처녀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악하게 농사일을 했다는것이다. 정말 힘든것만큼 보람도 큰 한해였다.

우리도 농장의 주인답게 당당하게 분배몫을 탔다. 나와 명순이는 래년봄부터 농업대학 통신공부를 하자고 약속했다.

숙소로 돌아오니 편지가 왔다. 67번째로 받는 편지였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은덕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우리처럼 사회주의농촌에 진출하겠다는것이였다. 그들의 마음이 고마왔다.

나와 명순이는 정성껏 회답편지를 썼다.

—1994년 2월 18일

어제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녀시절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흘러간 하루하루가 아쉽기만 했다. 오늘 나와 현백동무, 명순이와 원섭동무가 결혼식상을 받게 되는것이다.

어제밤 우리들의 첫날옷을 다림질하며 복순아주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에그, 친딸들처럼 정이 들었댔는데 둥지를 털고 날아나는구만.》

그러나 우리는 날아가는것이 아니다. 농장원총각들과 짝을 뭇고 풍요한 대지에 더 깊이 뿌리를 박는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둘이 아니라 넷이다.

아침에 우리는 여느날처럼 벌로 나갔다. 분조원들이 야단법석을 하며 등을 떠밀었다.

점심때 대문밖이 떠들썩하더니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가 원섭동무와 현백동무를 앞세우고 마당에 들어섰다. 우리를 축복하러 평양에서 온 부모님들과 공장동무들의 정다운 모습도 보였다.

《자, 새색시들을 데리러 왔수다!》 리당비서가 부엌에 대고 큰 소리를 쳤다.

《어쩌나!》 너무도 부끄러워 나와 명순이는 안방에 숨어 발만 동동 구를뿐이였다.…

× × ×

일기는 계속되고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시대앞에 지닌 본분을 자각하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정든 수도를 서슴없이 떠나 전야로, 탄전으로, 개발지로 가고있다.

이런 청년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싶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교시가 깊은 의미를 담고 안겨왔다.

고상한 정신세계와 인격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창조하는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본사기자 박용호

(27페지에서 계속)

연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가수들과 연주가들 속에서도 기대가 크고 사랑을 받고있는 신진지휘자 리일찬은 관현악과 합창 《백두의 말발굽소리》를 능숙하게 지휘하였다.

군사복무의 나날 예술적재능을 싹틔운 남성저음가수 석지민은 풍부한 성량과 독특한 음색으로 노래 《붉은기 끝까지 지키리》를, 녀독창가수 송정실은 민요4중창 《내 나라의 가풍》과 가야금독병창에 출연하여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 공연을 관람한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 로동자 김윤호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터놓고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말 일당백의 기백이 나래치는 무대입니다. 병사들과 더불어 우리 로동계급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친대도 끄떡없이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해갈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중들,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 말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조선인민군협주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아주시고 혁명군대의 성격에 맞는 공연, 시대적인 요구를 잘 반영한 공연, 시원하면서도 볼수록 재미있는 공연이라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김금숙

집단체조 《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

우리 나라 집단체조창작단과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30돐에 즈음하여 창작공연한 집단체조 《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는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집단체조는 경축장과 4개의 기본장, 마감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서장인 경축장은 해마다 만풍년의 기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내용과 농촌테제의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는 장면을 펼쳐보인다.

배경에 **김일성**화, **김정일**화 화면이 펼쳐지는가운데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 그리고 농촌테제발표 30돐을 경축하는 글발들이 연방 새겨지고 벼, 강냉이, 사과, 복숭아로 된 축포가 오른다. 《주체농법 만세소리 하늘땅에 울려가네》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남녀학생들이 꽃과 부채를 들고 축하의 꽃바다를 펼친 경축장은 농촌테제의 승리를 온 세상에 자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1장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에서는 농촌테제를 내놓으시고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농촌을 현대문명의 높은 령마루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배경에 새겨지는 글발들과 남학생들의 기백있고 씩씩한 높은 기교의 체조동작들을 통하여 집단체조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풍모와 농촌기술혁명의 력사적인 과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된 우리 농촌의 모습과 농촌의 높은 문명수준을 보여준다.

제2장 《농촌테제 꽃피우시려》에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손길아래 오늘의 사회주의농촌이 꽃펴났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1절의 마감에 집단체조는 화면에 **《수령님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1994.1.26 김정일》**이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친필명제를 정중히 모시고 화려한 운동복을 입은 남녀체조수들이 높은 기교의 쌍조형과 대형동작들을 펼친다.

2절 《그이께서 다녀가신 일터랍니다》에서 집단체조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 력사를 꽃피워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가슴뜨겁게 펼쳐보인다.

특색있게 구성된 제3장 《살기 좋은 우리 농촌》에서는 황금벼이삭 설레이는 풍년든 포전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서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밝은 화면에 정중하게 모시고 체조복장을 한 녀체조수들은 황금물결장면을 곤봉으로 우아하게 펼치여 온 나라에 해마다 만풍년을 불러오시는 경애하는 주석의 은덕을 높은 체육기교로 보여준다.

특히 나어린 학생들의 체조동작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온 장내가 격동으로 설레이게 한다.

제4장 《받들자 우리 당을》에서 집단체조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올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결의를 힘있는 체육무용과 붉은 기발, 봉기재에 의한 철봉대차, 태권도 집체동작과 위력으로 보여주고있다.

집단체조는 경애하는 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시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는 노래에 맞추어 체조수들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새기여 경애하는 주석과 우리 당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따를 결의를 보여주는것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집단체조는 종전과는 달리 예술체조와 기계체조, 교예, 체육무용 등 높은 기교가 요구되는 체육동작을 수많이 도입함으로써 작품이 다양하고 립체감이 나며 세련되고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집단체조와는 달리 실내에서 하는 이 집단체조에서는 대형환등을 리용하기때문에 그림을 섬세하게 형상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선화의 기법으로 아름답고 선명하게 표현할수 있었다. 또한 이번 작품은 배경화면이나 체조동작에서 내용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장면마다 적중한 음악과 배경화면, 형상성이 높은 체조수법으로써 보여주려는 내용을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또한 이번에 보천보전자악단에서 형상한 명곡들을 많이 리용함으로써 배경막의 그림과 체조동작이 담고있는 내용을 더욱 정서적으로 전달하고있다.

특히 교예체조, 기계체조, 예술체조, 태권도 동작들은 모두가 전문선수들의 수준에서 수행함으로써 체조의 기교를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였다.

집단체조는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날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집단체조의 위력을 떨치였다.

집단체조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들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해 떨쳐나선 온 나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였다.

본사기자



집단체조를 관람하는 해외동포들



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





《만풍년의 가을》



《위대한 사랑의 길》



《우리 당이 고마워》



《도시처녀 시집와요》





《웃음많은 우리 집》



《살기 좋은 우리 농촌》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의 한 장면



태권도의 한 장면



《충효일심》

본사기자 김광진

10명의 영웅을 자래운 학교

조선서해안의 곡창 열두삼천리벌에 위치하고있는 평안남도 문덕군 립석리에는 아담하게 꾸려진 립석고등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가운데서는 지금까지 10명의 영웅이 배출되였다. 하여 사람들은 이 학교를 가리켜 영웅의 학교라고들 하고있다.

원래 이 학교는 1930년대에 립석국립소학교로 발족한것이 조국이 광복(1945.8)된후 립석인민학교로 개편되였었다. 그런데 1946년에 중학교가 창설되면서 인민반을 병설한 립석중학교로, 그 이후 립석고등중학교로 되였다.

학교는 단층 목조건물이였는데 국가적인 시책에 의하여 1958년부터 1959년 사이에 4층 철근콩크리트 건물로 개건확장되였다.

연건평이 6,000여평방메터에 달하는 이 학교에서는 지금 1,2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학교건물에 들어서면 먼저 영웅소개판을 보게 된다. 그리고 복도마다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몸바쳐싸운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자!》라는 구호판과 함께 학생들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인 사실자료들에 대한 소개판들이 걸려있다.

직관물들은 이 학교가 영웅들을 많이 자래웠다는것과 학생들이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해 노력하고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는 또한 영웅등록장이 있다. 등록장에는 공화국영웅 지명환이 첫번째로 등록되여있다.

그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립석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시 지명환영웅의 담임교원은 리익섭선생이였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6~1953.7)시기 영웅의 고지로 알려진 1211고지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한후 영예군인으로 제대되여 1951년부터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다.

그는 총포탄이 우박치고 포연이 자욱한 고지에서 인민의 행복과 조국강토를 지켜싸우는 과정에 나라와 민족, 향토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해야 원쑤와의 싸움에서 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체험한 사람이다.

하기에 그는 학생들에게 조국의 한치의 땅,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에도 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고 피와 땀이 스며있어 그것이 더없이 귀중하다는것,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며 고향땅을 락원으로 꾸려나가는 그 길에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하나하나 깨우쳐주는데 힘을 넣었다.

이 선생이 담임했던 학급의 학생들가운데서는 세명의 공화국영웅이 배출되였다.

이 학교에서는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면서 여러가지 과외교양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애국심을 키워주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특히 영웅이란 어떤 사람이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과 한생을 어떻게 빛내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최영자는 알곡증산으로 당을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지켜갈 결심밑에 이곳 협동농장에 진출하여 열정과 지혜를 다바쳐 성실히 일했다. 분조장, 청년작업반장을 거쳐 립석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된 그는 이상기후조건의 불리한 날씨에도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커다란 위훈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는 1967년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이 학교 영웅등록장에 등록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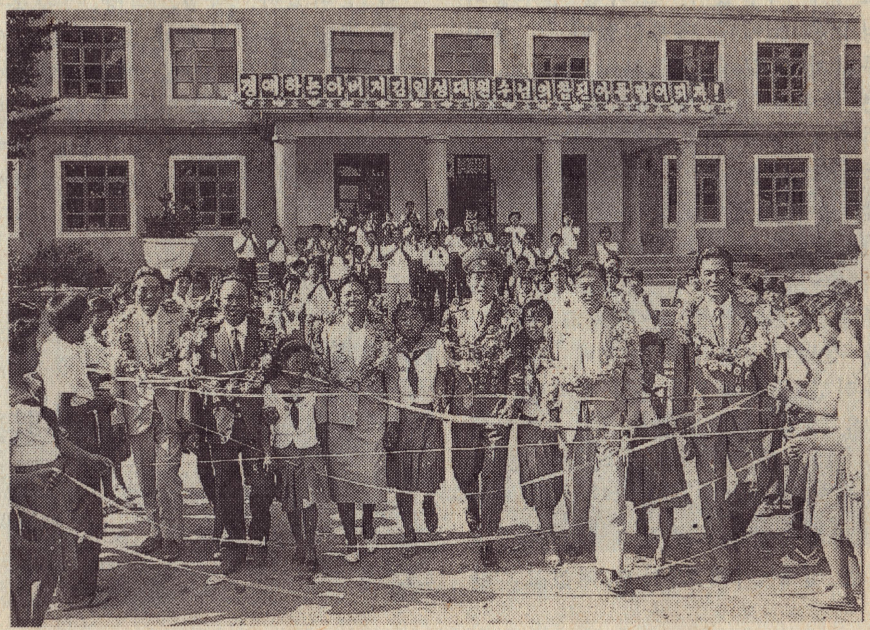
그의 뒤를 이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진출한 김금옥, 김숙녀들도 해마다 나라의 쌀독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것으로 하여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또한 이 학교 졸업생인 리영태는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워 1975년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뒤이어 김도근, 최창준(그는 1980년에 공화국2중영웅칭호를 수여받음), 최학모, 리병룡이 공화국영웅칭호를, 리경두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아 현재까지 이 학교 졸업생들가운데서는 10명의 영웅이 배출되였다.

학교에서는 오늘도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 학교 졸업생들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이 배출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더 많은 영웅들이 배출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갑송



탄부도시

한여름이라 무더운 날씨였다.

평안남도 청남구 새거리동에 사는 한명숙의 집을 찾아가는 우리도 더위에 얼마간 지친듯싶었다.

우리가 로련 하바롭스크 베르나르드스까야 20번지에서 살고있는 동생 한명옥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자 명숙은 그렇지 않아도 그에게서 회답이 없어 다시 편지를 쓰려고 하던 참이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마치 로련에 있는 자기 동생이 눈앞에 나타나기라도 한듯 반갑게 대해주니 우리도 땀흘리며 찾아온 피로가 삽시에 가셔지는듯 하였다.

한명숙은 팔순을 눈앞에 바라보지만 나이에 비해 무척 정정하였다.

《내 동생이 있을 때만 해도 이곳 안주탄전은 사람못살 고장이였다오.》이렇게 말머리를 뗀 그는 해방전 청남구(당시는 안주군 립석면 신리였음)주민들의 생활형편을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산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탄부들이였다. 그들은 하루에 16시간이상씩 탄광막장에 들어가 손바닥에 옹이 지도록 곡괭이로 탄을 캐여 등짐으로 져나르며 고역에 시달렸다. 그러한 탄부들의 정상은 노예나 다름없었다. 굴이 무너지는 일이 드문하여 남편을 잃은 녀인들의 곡성이 그칠새 없었다. 가장을 잃고 더는 살수 없게 된 그들은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고 살길을 찾아 탄광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고국땅은 그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왜놈들이 보기 싫었던 그들은 정든 고국산천을 뒤에 두고 두만강을 건넜다. 명옥이도 그때 해외로 흘러간 조선동포들중의 한사람이다.

8.15후 탄광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탄부들, 녀성들도 나라의 주인, 탄광의 주인으로 되였다. 탄광은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여 어렵고 힘든 일을 기계로 하게 되였고 탄광마을도 현대적도시로 전변되였다.

《동생이 조국에 왔던것은 언제입니까?》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된 해였으니까 해수로는 6년째이지요.》

명숙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젖어오는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열려진 창문으로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꽃향기가 진하게 흘러들고있었다. 이윽하여 그는 사진첩에서 몇장의 사진을 꺼내여 우리에게 보였다.

상봉의 그날 자매가 기쁨에 한껏 취해 부둥켜안고 찍은 사진들이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지만 그애가 한번 왔다간 다음 이 몇해사이에도 탄광마을은 얼마나 변했나요.》

사실이 그랬다. 탄광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변모되여가고있다. 고국방문시 명옥이 지나다니던 로동자문화회관 주변에는 덩지 큰 아빠트들이 수십동이나 들어앉았고 도로가 번듯하게 포장되였다. 제대군인청년들이 탄광에 자원진출함과 동시에 곳곳에 그들을 위한 살림집이 일떠섰다. 상점, 식당, 양복점 등 편의봉사시설들이 그 면모를 일신하고 구획에 맞게 배치되였으며 얼마전에는 현대적인 목욕탕이 또 건설되였다. 곳곳에 탄부들을 위한 남새온실이 건설되여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하고있다. 고려시기 중랑장 대도수가 500여명의 군사로 2만여명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안융진전투로 하여 소문난 성터밑에는 합숙생들을 위한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을 받들고 경공업제품의 품종과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운동이 벌어져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나날이 향상되고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전국석탄공업일군대회에 이곳 탄광에서도 수많은 탄부들이 참가하였다. 높은 국가수훈을 받고 돌아온 그들은 지금 석탄생산을 더 늘일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사람도 산천도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

과거에 이곳 청남구에는 빈민촌과 감자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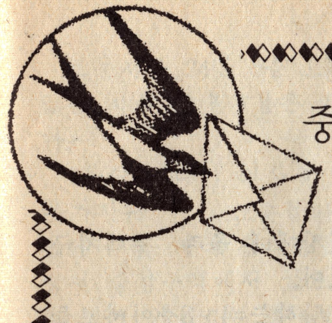
오늘 여기 탄부도시에는 새거리동, 문화동, 락원동, 검은금동, 충성동이란 새로운 이름이 붙은 구획들이 생겨났다. 이 이름들에는 그대로 로동당시대의 사회상이 비껴있는것이다.

앞으로 이곳 탄광의 모습은 또 얼마나 변하랴.

명옥이 이제 다시 고국땅에 올때면 언니의 집을 마중없이 혼자 찾아올수 있을런지.

탄광마을의 변모는 조국통일성업에 열중하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더없는 기쁨을 가져다주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의 집을 나섰다.

본사기자 로명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건공가 자산호동 18호 홍윤식 앞

이국에 있는 형님에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수님과 조카들 그리고 그곳의매부와 누님도 다 잘 지내는지요.

조국에 있는 우리 다섯 동생들은 별일없이 다 잘 있습니다.

금년봄에 형님과 형수님의 환갑을 한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대사를 어떻게 치르었는지요?

조국에 있는 동생들중에 둘째인 이 광식이만이래도 꼭 와달라는 청을 하였던데 나는 그 무렵에 평양에서 진행된 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고보니 가지 못하였습니다.

조국에 있는 동생들은 환갑을 맞이한 형님과 형수님이 부디 장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님, 형님과 누님은 저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잘 돌봐주라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 하던데 동생들의 걱정은 놓으십시오.

셋째 춘식이, 누이동생 춘화와 연옥이 그리고 막냉이동생 영식이 모두가 나라에서 맡겨준 일을 잘 하고 가정생활도 잘 꾸려나가고있습니다.

명절때마다 동생들과 조카들 모두가 우리 집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면 이국에 있는 형님과 누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며 명절을 즐겁게 보내군합니다.

하기에 이웃들은 우리를 보고 저렇게 의좋게 지내는 형제들이 흔치 않다고 부러워들 한답니다.

형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아들 병일이가 나라에서 과학인재를 키워내는 평성리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애가 강원도 고등중학교부문 학과경연에 참가하여 1등을 하였다는 소식을 학교선생님들이 병일이보다 먼저 달려와 알려주었을 때는 그게 정말일가 믿기 어려워 한동안 말못하고 서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리과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는 가슴이 막 벅차올라 한동안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습니다.

가끔 동네와 직장에서 우리 집안이 머리가 좋다고 우스개소리를 하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군합니다.

형님과 누님이 조국을 다녀가서 알고있지만 이 동생은 평범한 보통로동자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병일이는 남보다 머리가 뛰여나거나 좋은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성실하고 꾸준하고 직심스레 공부를 파고드는것이 장점이라 할가요.

선생님들은 그 특기를 보고 병일이에게 관심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애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밑거름으로 자랐습니다.

병일이의 대학입학은 우리 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병일이나 조카들의 성장에 너무도 무관심했습니다.

돈 한푼, 로력공수 하나 변변히 들인것없이 그애가 대학에 입학하였다니 그애를 낳아키운 부모도 모르게 기울여준 나라의 은덕이 고마왔고 그처럼 고마운 나라를 위해 우리 형제가 한 일은 너무도 적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형님, 병일이가 대학에 입학하니 조카애들도 저저마다 그처럼 대학에 가겠노라 밤을 밝혀가며 공부를 하는것이 대견하고 기특하답니다.

이제 몇해후면 우리 집안에 대학생들이 꽉 들어찰것 같습니다.

형님, 우리에게 이런 희망, 이런 미래가 약속되고보면 그처럼 우리의 앞길을 두고 걱정이 많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할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형님, 형님과 누님은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 조국이 북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을 가슴아파하며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더군요.

형님, 조국통일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이국에서 사는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목소리를 합쳐주는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형님, 이만 쓰려고 합니다.

려행에 맞춤한 계절을 잡아 조국에 오십시오.

금강산의 관문으로 되여있는 고성은 형님과 누님이 다녀간 이후로 몰라보게 변모되였답니다.

형님과 누님 그리고 온 집안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49반 홍광식 올림



홍광식(가운데)의 형제들

명당로동자구를 찾아서

평양시에서 동남쪽으로 얼마간 가면 상원군 명당로동자구가 나진다.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와 그 량옆에 줄지어늘어선 가로수들, 상원천의 맑은 물줄기가 흘러드는곳에 욱실거리는 고기떼를 보면 마치 유원지에 들어서는듯한 인상을 준다.

일출봉을 비롯한 해발고 200메터정도의 높지 않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련련히 늘어선 계곡을 따라 한폭의 그림인양 펼쳐진 현대적인 살림집거리, 유원지로 꾸려진 상원천기슭이며 그 너머로 멋쟁이자태를 드러내놓은 산업시설들…

이것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자리잡은 로동자구의 전경이다.

산업지구와 주택지구는 상원천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있는데 날씬한 콩크리트다리가 이 두 지구를 련결해주고있었다.

로동자구는 이름그대로 명당자리에 들어앉아있었다.

우리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인 리진홍으로부터 로동자구의 연혁을 들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상원군 신하리라고 불리웠다. 그런데 인적드문 이 골짜기에 세멘트생산기지가 생겨나면서 많은것이 달라졌다. 철도역이 새로 생기고 대도로가 번듯이 닦아졌으며 골안이 미여지게 사람들과 기계설비가 들어왔다. 산업지구의 신설과 로동인구의 증대는 불피코 주변의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기 마련이라는 기존관념이 이곳에서는 무시되였다. 로동자구의 건설은 이 일대의 기묘한 지형을 재치있게 리용하고 부각시키면서 진행되였다. 정교하고 맵시있는 현대적인 산업시설들은 골짜기안의 어설프던 빈 공간을 보기 좋게 메워버렸고 오랜 세월 제멋대로 흐르던 상원천은 새로 태여나는 주택지구의 미감에 맞게 길들여지고 정리되여 강안의 정서가 더한층 풍만해졌다. 철저하게 밀폐되고 원격조종화된 생산공정과 고성능제진장치들이 이 일대의 오염과 환경파괴를 믿음직하게 막아주었다.

《한마디로 여기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식 산업건설방식이 구현된곳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리진홍의 말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생산공정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소성로를 세우려던 양지바른 야산기슭에는 로동자주택지구를 훌륭히 형성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러시고 주택지구건설을 공장건설보다 먼저 선행하여 진행하며 거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투자의 규모와 기업의 수익성보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조건을 항상 먼저 타산해야 한다는것이 산업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그이의 관점이며 립장이였다.

1988년 8월 이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위치가 좋다고 하시면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명당자리에 자리잡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이곳은 명당로동자구로 조국땅 지도우에 표기되였다.

우리는 전망대에 올라 주택지구를 부감하였다.

50여동에 달하는 4~8층아빠트들이 들쑹날쑹 솟아있고 그 사이사이로 독특한 형식의 학교, 병원, 상점, 문화회관, 목욕탕 등 공공시설들이 립체미를 돋구며 배치되여있는 주택지구는 대도시의 중심거리를 련상시켰다.

이 주택지구의 부지면적은 근 30정보에 달한다고 한다.

산업지구건설의 기성관례를 깨뜨리고 공장조업식보다 2년이나 먼저 주택지구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로동자들은 직종도 받기전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았다.

우리는 리진홍의 안내로 주택들을 돌아보았다.

로동자구의 주택은 총 1,300여세대인데 세대당 면적은 95~125㎡였다. 주택들은 모두 온수난방화되였으며 항시적으로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고있었다. 련합기업소의 한개 직장이 전문적으로 주택지구의 온수를 보장해준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새집들이를 하는 때에 세대마다 텔레비죤수상기를 보내주었으며 옷장, 이불장, 책상, 침대 등 10종의 고급가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하루일을 끝마치고 저녁시간의 한때를 보내며

로동자구 24반 5층 1호에서 살고 있는 사무원 태우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사올 때는 다만 옷가지와 그릇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형제들은 모두 평양시 중심구역에서 살고있는데 저의 집에 와보고는 훌륭하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주택 매 세대에는 세대주방, 어린이방, 로인방, 전실 등이 따로 있고 매 방들에는 베란다가 달려있었다.

우리는 주택지구의 중심에 덩실하게 자리잡은 종합상점에도 들리였다.

이 상점은 갖가지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기, 과일, 남새,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팔아주는 특이한 형태의 상점이였다. 여기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체 상품은 평양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며 남새는 상원군종합농장 대천분장, 과일은 과일군과수종합농장, 수산물은 신포수산사업소가 보장하는 정연한 체계가 서있었다.

그리고 로동자구에는 수십정보의 과수원과 부업지, 양어장도 있었다. 성능높은 음향설비와 조명장치, 영사기들이 구비된 750석의 로동자문화회관이며 90여종의 치료설비를 갖추어놓고 자체로 대수술도 할수 있는 유능한 의료진을 가지고있는 병원을 돌아보고서도 우리는 국가가 이 크지 않은 로동자구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주택지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곳에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찾아오군하는데 참관을 마치고나서는 세멘트공장지구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며 《페니실린공장보다 더 깨끗한 곳》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고 말했다.

소성직장 수리공인 마진국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는 세계 30여개나라의 100명가까운 외국인들이 다녀갔는데 그들모두가 평범한 로동자들이 100평방이 넘는 고급주택을 쓰고사는 사실을 매우 주목했다고 했다. 지어 어느 한 기자는 인민학교에 다니는 자기의 막내딸에게 너희 아버지가 로동자가 옳으냐고 슬그머니 물어보기까지 했다는것이였다.

이런 이야기는 로동자구 5반 2층 1호에 사는 림수남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재작년 8월 그의 집에는 미국 뉴욕시에서 살고있는 외삼촌 류태영동포가 찾아왔었다고 한다.

이름있는 신학박사이며 교회당목사인 그도 련합기업소 제품검사원인 조카의 집을 보고 몹시 놀라와했다. 그의 말이 자기 가족은 교회당에 있는 한 방을 꾸리고 거기에서 사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는것이였다. 미국에서는 림수남이 쓰고사는것과 같은 방 한칸을 세내자면 매달 2천딸라는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일을 조카의 집에서 묵어갔는데 공화국에 와보니 많은것이 새롭고 놀랍다고 하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교인들에게 자기가 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겠다고 했다는것이였다.

이곳 사람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기 고장에 두번씩이나 모셨던 사실을 제일 큰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동지의 배려를 떠나서는 자기들의 오늘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어느덧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자 하루일을 마친 로동자들이 물밀듯이 공장정문으로 흘러나왔다.

10여리 떨어져있는 석회석분광산의 로동자들을 태운 출퇴근전용차들이 연방 주택지구로 들어섰다.

주택지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상원천유원지와 로동자문화회관, 정양소, 아빠트들로 저마끔 흩어져갔다.

랑만과 희열로 약동하는 로동자구의 저녁일과가 시작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채로운 로동자구의 저녁풍경을 오래도록 감상하였다.

본사기자 박 호

건강에 좋은 검은콩물차

검은콩은 옛날부터 민간에서 약재로 많이 써왔다.

이 콩의 성분은 주로 폐, 위 등에 작용하며 바람과 열을 없애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낫게 한다. 이밖에도 이 콩은 목구멍탈에 잘 듣는 약재로서 삶은 이 콩물을 정상적으로 마시면 목소리가 좋아지고 기침이 멎는다.

이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폐와 기관지에 작용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

또한 이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질을 잘 풀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데 기본인 콜레스테린을 잘 풀리게 하여 그것이 동맥벽에 붙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레시틴은 간에 기름이 쌓이는것을 막는다.

그렇기때문에 이 콩물차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동맥경화증이나 지방간을 예방 및 치료 할수 있다.

이 콩은 몸의 저항성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검은콩물차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검은콩 두고뿌를 씻어 물(콩이 불어나서 잠길량)에 하루밤 담그었다가 다음날 그대로 약한 불에서 2시간정도 삶아서 바구니 같은것에 쏟아넣어 물을 밭는다. 그 물에 사탕가루를 적당히 넣어 다시 끓인 다음 서늘한 곳에 두고 마신다.

물을 밭고 남은 검은콩은 다시 물을 넣고 만만해질 때까지 푹 삶는다. 거기에 사탕을 조금 두고 좀더 삶다가 간장을 네숟가락정도 두고 불을 끈다.

이것을 하루밤 놔두면 오들오들한 묵이 된다.

묵은 그대로 먹거나 더운물에 풀어서 마시면 좋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은 40년전쟁을 끝장낼 때이다

부르스 커밍스 (미국)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부르스 커밍스는 미국잡지《네이숀》최근호에《지금이야말로 40년전쟁을 끝장낼 때》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 ※

조선전쟁이 끝난 다음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이것은 정전협정 13조 ㄴ항을 명백히 위반한것이다.

1957년 아이젠하워대통령은 1953년에 처음으로 실험한 280미리원자포를 남조선에 배치하였고 1959년에 미공군은 핵무기를 적재한 마라돌 미싸일로 장비되였다.

레간행정부는 남조선의 무기고들에 새로운 핵무기들을 채워넣었고 20만명(미군 7만명)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팀 스피리트》군사합동연습을 해마다 벌려놓았다.

부쉬 전 대통령은 1991년 9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조선반도로부터 철수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높은 정밀도의 재래식무기가 핵무기보다 뛰여난다는 만전쟁의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3년 2월에 새로 취임한 리 바트라 미전략사령부 사령관은 구쏘련을 목표로 한 전략핵무기(수소폭탄)가 목표를 북조선으로 돌려재조준하고있다고 진술하였다. 미중앙정보국장 제임스 우르지는 북조선이《미국의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증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993년 3월중순 미군이《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 북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표명하였다.

《팀 스피리트》군사합동연습과 미국의 핵위협이 조약탈퇴의 동기를 제공한것이라는것이 북조선의 명백한 립장이였다.

그런데 지금 조선과 미국 사이에는 40년간 끌어오던 적대감의 턴넬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최근 몇달간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정책상의 변화가 일어났기때문이다.

클린톤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이 이룩할수 없었던 몇가지를 이룩한 셈이다.

첫째로, 정부내 전문가들은 북조선의《핵개발》에 대한 평가에서 커다란 견해상 차이가 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둘째로, 미국은 핵문제만 아니라 광범한 내용의 정책문제도 론의하는 고위급회담에 응해나섰다.

셋째로,《팀 스피리트》군사합동연습의 중단을 비롯한 가능한 양보를 북조선에 제시하였다.

넷째로, 북조선에 원자력발전소기술의 원조의사를 표시하였다.

북조선도 역시 최근에 외교 및 기타 문제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다.

당사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지금이야말로 40년이 넘는 조선전쟁이 참말로 끝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암시하고있다.

그러나 팽창할대로 팽창한 국방비를 정당화하는데 여념이 없는 미국방성은 북조선에 여전히 시선을 돌리고있다. 국방비를 1년에 2천 8억딸라를 쓰는 미국이 1993년의 정부예산전체로 봐도 대비도 되지 않는 북조선을《미국안보의 최대위협》이라고 말하고있다. 왜 그런가?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말해두고싶은것은 북조선에는 2천 200만의 인간이 살고있으며 그들은 결코 일부 미국인들이 말하는《뇌사상태의 페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40년간에 걸쳐 그들을 고립시켜왔고 그들을 포위하였으며 또 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행위를 그만둘 때가 아니겠는가.

시

솔 잎

리만수

조국은 푸른 소나무
나는 그 나무의 이파리 하나
너의 단즙으로 자랐더라
한잎두잎 어깨겯고 설레이노라

봄날의 향기안고
내 노래 저 멀리로 울려가고
여름이면 푸르청청
눈바람속에서도 그 모습 변함없으리

궂은비 내린들 어떠하리
눈보라 친들 어떠하리
내 생명의 노래를
아낌없이 엮으리니

그 모습 푸르른 소나무, 조국이여
나를 잊지 마시라
이내몸 락엽이 되여 떨어진대도
그대를 받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필자 중국 료녕성 금주시 릉하구 국원거리 국화리, 조선출판물교류협회 독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7)

《직사포를 고지에로》



부주제군상《직사포를 고지에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전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포병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직사포를 고지에 올려다놓고 적을 소멸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전법은 전쟁사상 그 류례가 없는 독창적인 전법이였다.

자기들의 실지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는 포병들,

하기에 가파로운 고지우로 직사포를 끌어올리는 포병들의 얼굴마다에 백절불굴의 투지가 넘쳐 흐른다.

육중한 포를 끌어올리자니 온몸에 비지땀이 흐르지만 용기백배하여 앞에서 포를 끌어당기는 포사격수,



힘있게 구령을 치는 지휘관, 뒤에서 통나무 지레대로 포를 떠미는 조준수, 한몸이 그대로 받침돌이 되여 어깨를 육중한 포바퀴에 들이밀며 안깐힘을 쓰는 어린 병사…

군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전법을 받들고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이 군상의 중심에는 우리의 무력을 과시하듯 직사포의 포신이 사선으로 뻗어나갔다.

이 부주제군상은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해방된 남녘땅에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후 영웅적인 우리 인민군대는 반공격에로 넘어가 침략자들을 소멸하면서 남녘땅의 많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부주제군상《해방된 남녘땅에서》는 바로 이때의 우리 인민군대와 남녘땅 인민들의 크나큰 감격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질풍같이 진격해온 땅크병과 그의 품에 안겨 손을 흔드는 남녘의 소년, 공화국기를 손에 들고 해방된 거리에 달려나온 소녀, 땀에 젖은 인민군전사에게 바가지로 시원한 물을 떠서 권하는 할머니, 자기도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물을 대접하고싶어 물통을 들고 나온 소년, 의용군에 입대한 청년, 감옥에 갇힌 애국자들을 구원한 인민군전사와 자기의 크나큰 격정을 목청껏 터치는 남녘의 투사…

남녘인민들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그대로 말해주듯 도시의 건물담벽에는 소박한 글씨로 쓴《**김일성**장군만세》라는 글발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이 부주제군상은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해방된 남녘땅에서의 각이한 인물들의 감격적인 형상을 담고있는 군상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그날 통일만세를 목청껏 높이 부를 그 감격을 스스럼없이 그려보게 한다.

본사기자 윤대중

평양보링그관

올해에 들어와 평양시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는 또하나의 대중체육문화오락시설인 평양보링그관이 완공되여 개관되였다.

청년중앙회관옆에 새로 일떠선 이 보링그관은 연건축면적이 1만 4,300여평방메터이며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되여있다.

보링그관은 건축미학적으로 보나 현대과학기술도입의 견지에서 보나 손색없이 꾸려졌다.

건물의 외형 정면은 유리로 되여있어 대동강반의 풍치에 잘 어울리면서도 사람들에게 경쾌하고 시원한 감을 안겨준다.

건물 외형에서 특징적인것은 뾰족하게 생긴 세개의 지붕이다. 이 세개의 지붕은 따로따로 되여있는데 피라미드형으로 건설되여 현대건축물로서의 특색을 잘 살리고있다.

보링그관의 내부 역시 그쯘히 꾸려져있다.

보링그관의 지하층에는 하루에 5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목욕탕과 한증칸, 안마실, 치료체육실, 청량음료매대들이 꾸려져있으며 70대의 자동차를 세울수 있는 차고들이 있다. 여기에는 또한 항상 시원한 공기를 보내주는 공기조화실과 난방을 위한 가열장, 배전반 등 운영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1층에는 보링그경기홀과 경기운영설비들, 관람석, 당구실, 봉사시설들이 있다. 문양고운 수지벽지를 바른 벽체와 고급주단을 깐 바닥, 밝고 시원한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춘 넓은 경기홀에는 규정된 길이와 너비를 가진 40개틀의 보링그설비가 있다.

보링그경기는 체육종목의 하나로서 길이가 약 16메터, 너비가 약 1.5메터인 긴 평면대우에서 3.25~7.25키로그람의 각이한 무게를 가진 축구공 비슷한 9개의 뽈을 굴려 틀끝에 세워놓은 10개의 곤봉을 넘어뜨려 얻은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가르는 경기이다.

곤봉을 세우고 나르는 일과 뽈운반은 모두 전자설비들이 맡아하며 경기자의 모습과 득점은 콤퓨터에 의하여 신속정확히 화면에 나타나게 되여있다.

경기홀 뒤면에는 경기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500여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관람석과 콤퓨터조종실이 있다.

1층에는 손님들을 위한 100석식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음식들을 봉사한다. 그밖에도 220여명 수용능력의 남녀탈의실, 샤와실, 당구실이 있다. 당구장옆에는 청량음료와 당과류 등을 파는 매대가 있다.

보링그관의 2층에는 회의실, 연회실, 면담실, 기념품상점 등이 있고 여러가지 오락을 할수 있는 전자오락실이 있다.

보링그관의 모든 설비들은 원격조종화되여있다.

이처럼 평양보링그관은 종합적인 체육문화봉사기지이다.

우리 인민과 특히 청년학생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보링그관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은 착공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이 건축물을 일떠세웠다.

여기에는 또한 총련상공인 권영숙과 그 가족들의 애국지성이 깃들어있다.

평양보링그관은 지금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건강상식

여름타는것을 막는 식료품

여름을 탄다는것은 더위때문에 입맛을 잃고 단백질같은것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생기는 증세를 말한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기때문에 체온이 몸밖으로 잘 빠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안에서 카로리가 잘 소모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카로리가 많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료품을 많이 먹는것이 좋다.

단백질은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기본물질이다.

단백질이 적은 물질을 먹으면 물질대사활동이 떨어지고 위에서는 위액의 분비가 나빠진다. 그리하여 입맛이 떨어진다.

또한 빈혈이 있으면 단백질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기때문에 이것 또한 여름을 타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부터 생각하는데 여름에 대부분의 고기는 입맛을 돋구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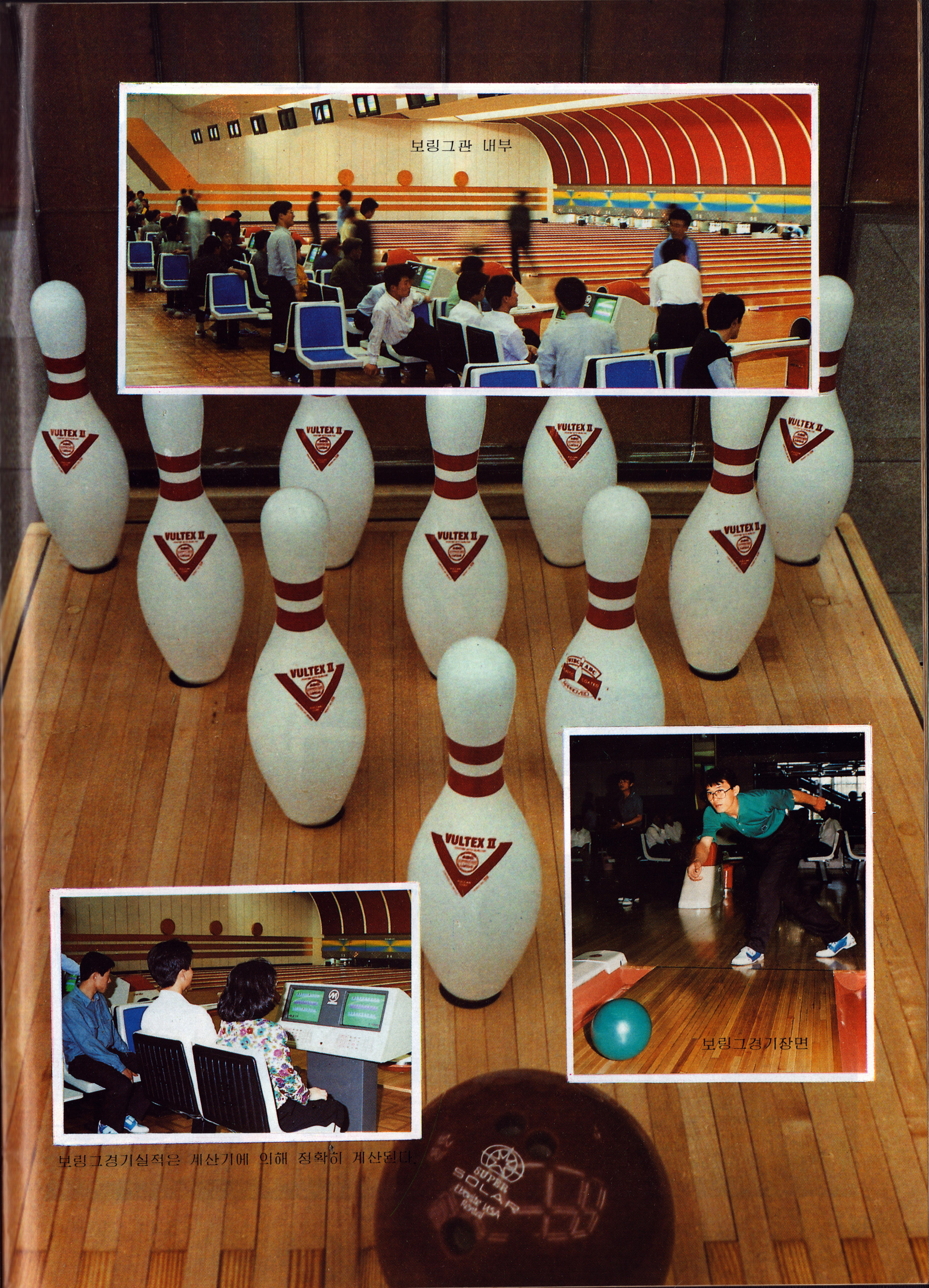
단백질이 많으면서도 여름철에 입맛을 돋구는 식료품으로는 두부, 콩국, 닭고기, 명태 등을 들수 있다.

두부와 콩국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흡수가 잘 되며 손쉽게 만들어먹을수 있다. 콩국은 더운 때 물대신 마셔도 좋다.

이밖에 식물성기름을 많이 먹는것이 좋다. 식물성기름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입맛을 돋군다.

또한 비타민 에이와 씨가 부족하면 감기에 잘 걸릴수 있을뿐아니라 소화가 잘 안되고 입맛을 잃으며 여름을 타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는 비타민 에이와 씨가 풍부한 남새를 먹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시금치, 배추, 부루, 쑥갓 등 남새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을뿐아니라 철성분을 비롯하여 미량원소들도 있어 빈혈 등의 예방에도 좋다.



보링그관 내부

보링그경기장면

보링그경기실적은 계산기에 의해 정확히 계산된다





보링그관은 1994년 2월 14일 개관식을 하였다.



봉사성높은 의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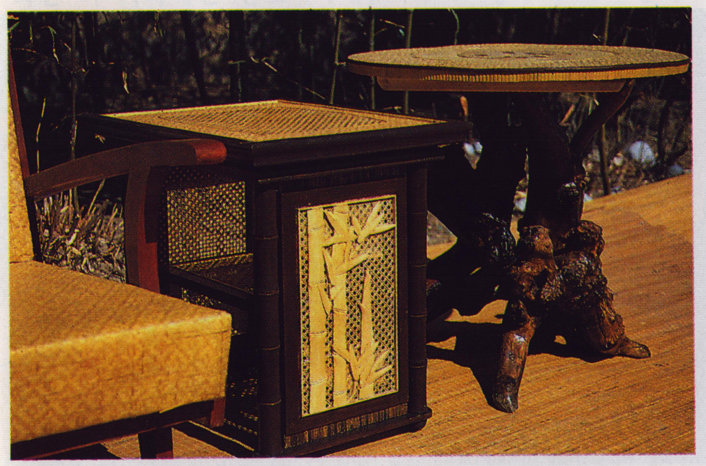
청량음료점에서



보링그관 외경

본사기자 리히철

참대공예



옆차대와 자연목원탁



참대모자와 참대과일그릇

우리 나라의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고성공예품생산협동조합에서는 참대공예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이 지방에서 자라는 참대를 가공하여 만드는 원탁, 의자, 앞차대, 옆차대, 모자 등 제품은 보기도 좋고 질도 좋아 그 인기가 대단하다.

여러가지 색갈을 가진 참대로 굵기가 다양한 살을 뽑아 문양을 놓고 형태를 잡아 만드는 공예품은 공예가들의 높은 재능과 기능에 의하여 완성되게 된다.

이 조합에서는 건물장식용참대공예도 발전시키고 있다.

참대살로 촘촘히 뜬 그물에 섬세하게 가공한 목각품을 붙인 건물장식용공예품은 보기가 시원하고 화려하며 독특한 고전미를 주어 려관이나 식당, 상점의 내부장식에 널리 쓰인다.

고성공예품생산협동조합의 공예가들은 참대공예품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있다.

본사기자 박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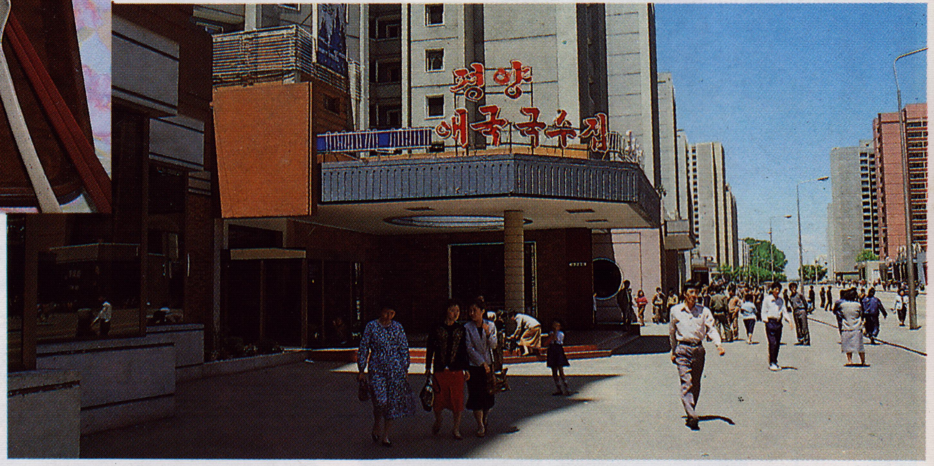
참대 원탁과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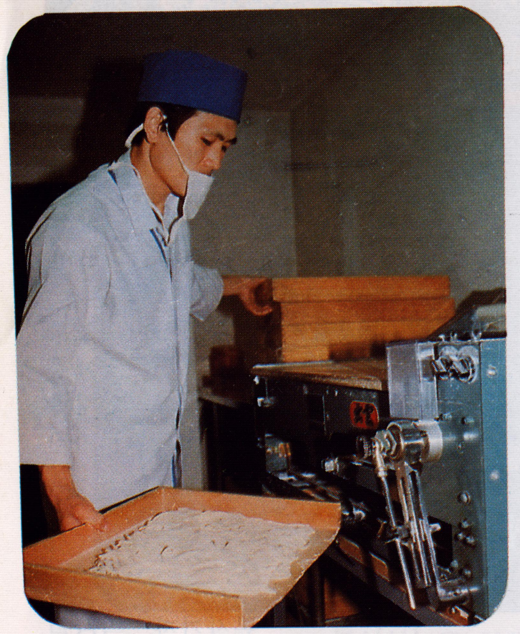
참대 의자와 앞차대



평양 애국국수집



평양애국국수집 외경



국수가공



료리실



애국국수집 내부

평양역에서 고려호텔을 향해 얼마간 걸으면 각종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호텔앞거리에 들어서게 된다.

사람들속에서 음식점거리로 통칭되는 이 거리에는 단고기국집, 서양료리집, 중국료리집, 통닭구이집, 조개구이집, 지짐집, 청량음료점, 차집 지어 꼬치안주집까지 있어 다종다양한 료리들을 맛볼수 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점심시간이여서 식당마다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우리는 특별히 많은 손님들로 붐비는 평양애국국수집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상냥하고 인상좋은 접대원처녀의 친절한 마중은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시원한 하늘색바탕의 접대복을 입은 처녀의 안내로 우리는 좌석에 앉았다.

식사방은 밝고 널직했다. 좌석은 모두 10줄로 되여있는데 세여보니 120석이였다.

《우리 애국국수집은 언제나 이처럼 사람들로 흥성거린답니다.…》

풍채좋은 식당책임자 리금선은 좌석에 앉은 손님들을 둘러보며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먹음직스러운 국수그릇을 보자 바싹 구미가 당기여 우선 국수부터 한그릇 청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몸매가 날씬한 접대원처녀가 국수를 날라왔다. 네모난 소반에 큼직한 국수사발이 놓여있고 김치 한공기 그리고 요구에 따라 수박이나 도마도 화채가 곁들여져있었다.

국수사발은 밤색사기그릇 같았는데 들어보니 가벼워 수지그릇이라는것이 알려졌다.

굵직한 밀국수에 넙적넙적한 남새튀기, 두부튀기, 오이생채며 삶은 계란이 수북이 놓여져있었다.

큰 수지숟가락에 긴 나무저가락이 또한 특색이였다. 저가락을 들어 국수의 맛을 보니 참으로 별맛이였다.

맑은 국수물에서는 달작지근하면서도 독특한 향기가 풍겨왔다. 국물의 맛은 감미로왔다.

우리가 흐뭇한 기분으로 식사를 마쳤을 때 한식탁에 앉았던 할아버지가 흰수염을 쓰다듬으며 《거, 접대원처녀, 국수맛이 별맛이군. 한그릇 더 주게나.》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할아버지는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에 살고있었다.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손자애들까지 온 식구가 한주일에 한번씩은 꼭꼭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고있는데 인제는 애국국수집의 단골손님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어느사이 그 옆에서 식사하던 청년이 자기들은 친구의 생일이여서 이렇게 다섯이 함께 왔노라 하면서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로동자라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저마다 국수맛이 독특하다는것, 접대원처녀의 살뜰한 봉사에 한번 오면 또 오고 싶다는것 등 칭찬만 늘어놓았다.

그들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여러 손님들이 국수맛이 좋다고 하면서 한그릇 더 청하는것이였다.

그들의 이런 심정을 눈치챈듯 어느결에 다가왔는지 리금선 식당책임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국수집의 래력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우리 국수집은 1992년 2월 16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국수집은 재일동포상공인들과 합영하고있는데 원자재와 설비는 총련 경화상사가 대주고있습니다. 우리 국수집에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언제나 조국을 잊지 않고 어머니조국을 위해 그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충정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자고 식당이름을 〈평양애국국수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리금선은 진수성찬은 못되지만 간단히 식사하기에는 값도 눅고 맛도 괜찮아 많은 손님들이 즐겨찾는다는 이야기, 특히 중국, 일본, 로씨야를 비롯한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면 자기네 식당부터 먼저 찾는다는 이야기, 이 거리의 음식점들중에서 리용하는 손님들이 다른 식당보다 많다는것, 낮에는 12시부터 3시까지, 저녁에는 5시부터 9시까지 봉사해주며 새벽봉사도 5시부터 8시까지 하고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한밤중이나 새벽에 평양역을 리용하는 려행자들속에서도 호평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주방에도 들려보았다.

현대적인 료리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주방은 위생문화적인 조건이 훌륭히 보장되여있었으며 질서정연하고 깨끗하였다.

산뜻한 위생복차림을 한 리승철, 최철 료리사들이 국수를 뽑느라 여념이 없었고 고급료리사들인 박보비, 김정심은 남새튀기와 두부튀기를 하느라 바쁘게 돌아쳤다.

애국국수가 별맛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본맛을 내는가고 물었다.

인심좋게 생긴 주옥실주방장이 《고기국물도 들어가지만 말린 새우가루가 은을 낸답니다.

우리는 애국국수의 고유한 맛을 잘 살리기 위해 기술학습을 자주 하며 료리품평회 같은것도 조직합니다. 그리고 표준제법을 잘 지키고 기수에 따르는 식사의 질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루 천수백기를 내고있는데 앞으로 그릇수를 더 늘일 계획이라는것과 총련동포들의 애국지성이 은을 내도록 국수의 맛을 더욱 돋구며 봉사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여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난후 유쾌한 식사시간을 보내고있는 손님들을 의미깊게 둘러보았다. 목젖이 넘어갈듯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조국을 사랑하는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충정이 이 한그릇의 국수에도 뜨겁게 미치여 이렇듯 조국인민들의 체내에,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것이 아닌가?!)

국수집을 나선 우리는 《애국》이라는 글발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애국》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본사기자 김경희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어항도시—신포



북청을 떠난 우리가 동해의 이름난 수산업기지 신포에 도착한것은 해솟는 이른아침이였다.

눈부신 아침해살로 금빛물결 설레이는 아득한 포구며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활기찬 모습이며 창조와 로동으로 약동하는 신포의 첫인상은 마냥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북계봉을 주봉으로 펼쳐진 산발들을 배경으로 하고 마양도를 천연적인 방파제로 하여 경치아름다운 동해바다기슭에 일떠선 어항도시 신포는 첫눈에 벌써 수산물생산의 종합적인 기지로서의 그 위용이 한껏 안겨왔다.

갈매기 날아예는 바다우로 꼬리를 물고 오가는 고기배들, 바다멀리 쭉쭉 뻗어나간 잔교들, 부두가마다 숲을 이룬 기중기들과 물고기하륙설비들, 도래굽이마다에 들어앉은 물고기가공공장들, 그런가 하면 해변가를 따라 즐비하게 들어선 어로공들을 위한 탑식주택들과 여러가지 모양의 다층주택들…

이 모든것이 해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자태를 드러내놓고 어항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있었다.

우리를 반겨맞은 신포수산사업소 기사장 장정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방전 이 고장은 모래불이 흩날리는 백사장에 가마니짝이나 널판자로 지은 움막집들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널려져있었고 왜놈들이 경영하던 자그마한 철공소와 험상한 몇척의 배, 두가닥의 휘청거리는 나무잔교가 있었을뿐 초라하고 빈곤하기 그지없는 나루터였다.

해방후 새 생활이 꽃펴나던 이곳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배 한척, 잔교 하나 성한것없이 다 파괴되였다.

전쟁의 포연도 채 가시여지지 않았던 1953년 10월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로공들과 함께 재가루만 날리는 부두가를 거니시면서 신포를 큰 어항도시로 전변시킬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어항도시의 전변의 새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지난날 모래산이 듬성듬성 솟아있던 백사장에 오늘은 만년대계의 잔교와 물고기하륙설비, 물고기가공설비들을 갖춘 대규모의 어항이 건설되고 물고기통졸임공장이 일떠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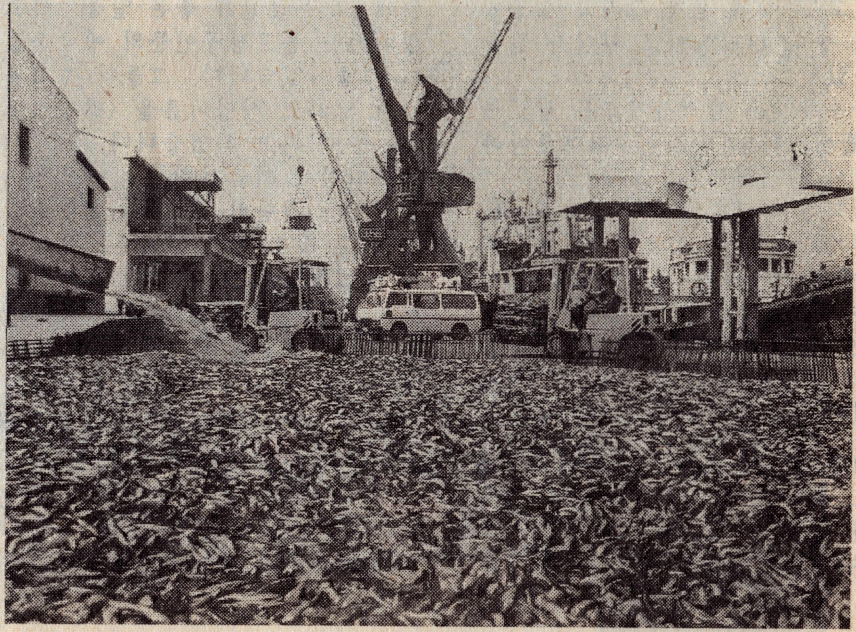
기사장의 안내로 1호부두에 들어서니 여러척의 대형운반선들에서 기중기들과 지게차들이 붐비며 랭동한 물고기블로크를 들어내고 실어나르는중이였다.

《이 물고기는 지금 먼바다어장에 나가있는 대형가공모선 〈금강산〉호에서 운반해온것이지요.》

기사장의 말이다. 돌덩이처럼 얼쿤 물고기짝들이 벨트콘베아에 실려 대형랭동고로 끊임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전후 불과 몇척의 기계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던 이곳 신포수산사업소만 놓고보더라도 오늘은 수천톤짜리, 1만톤급이상의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된 수많은 배들을 가진 강력한 먼바다어업기지로, 수만톤의 랭동능력과 가공설비를 갖춘 물고기가공기지로 전변되였다.

올해 상반년도 물고기잡이계획을 이미 지난 2월에 넘쳐 끝낸 이 수산사업소는 전후 1년동안에 잡던 물고기를 지금에 와서는 불과 한주일동안에 다 잡으며 그 즉시로 가공처리한다고 하였다.



신포수산사업소

수산사업소를 나선 우리는 신포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시내의 곳곳에는 어구공장, 제통공장, 수산기계공장을 비롯한 수산부문에 종사하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섰고 이곳 조선소에서는 중형뜨랄선은 물론 대형뜨랄선까지 척척 무어내고있다.

해방전 바다로 나간 사람들의 생사여부를 몰라 한숨속에 애타게 기다리던 언덕우에 오늘은 해양연구소, 선박설계연구소, 물고기가공연구소 등 과학연구기관들이 세워졌다.

그런가 하면 해변가로는 어로공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특별히 설계된 6층~8층 탑식주택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바다물에 드리웠고 높고낮은 다층주택들이 해암 1, 2동, 련호동, 어항동을 비롯한 시내에 규모있게 들어앉았다.

목금산기슭에는 3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경기장이, 룩대와 풍어로 가는 갈림길에는 1,000여석의 수산사업소문화회관이 일떠섰고 해암동 일대의 백사장에는 해수욕장도 꾸려졌다. 이 모든것이 어로공들을 비롯한 수산부문의 근로자들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신포시내 중심에 자리잡고있는 신포수산단과대학에도 들리였다.

1979년에 창립된 이 대학에서는 수산학과, 선박기관학과, 수산물가공학과, 양식학과를 비롯한 여러개의 기본학과를 두고 수산부문의 다양한 인재들을 키워내고있다고 한다. 또한 대학에는 전파탐지기, 어군탐지기, 방향탐지기를 비롯한 실험설비들을 갖춘 12개의 실험실들과 5만여부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도 있다.

어장대학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대학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어로공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있는데 어로공대학생들이 배를 정비수리하는 기간에 년에 3개월씩 대학에서 집중강의를 받고있다. 나머지기간은 먼바다로 찾아나온 교원들로부터 배우에 꾸려진 분강의실과 학습실에서 강의도 받고 개별학습지도도 받고있다.

대형선미뜨랄선 《은파산》호에는 현지학습반이 조직되여 그 배의 어로공대학생들은 대학전과정을 배우에서 마치게 된다고 한다.

지난날 《배군》으로 천대받으며 칠성판을 지고 기약할수 없는 길을 눈물로 떠나던 사람들이 오늘은 이렇듯 바다의 주인, 포구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인간으로 문명세계에서 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광열

겨레의 지향

반공화국소동, 반민족적행위 규탄

▲범민련 카나다지역 본부 성명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카나다지역본부가 조미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여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즉각 철거할것과 공화국과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갈라진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민족의 념원달성을 미국이 더이상 방해하지 말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민련 구라파지역 본부 성명 발표

보도에 의하면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는 지난 3월 19일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공화국에 부당하게 핵사찰압력을 가하고있을뿐아니라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비롯한 신형무기들의 남조선반입에 열을 올림으로써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증대시키고있는 사실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굴종하는 김영삼〈정권〉의 정치형태가 지속되는 한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민족의 자주적생존권은 유린당할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미국핵무기의 페기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 《팀스피리트》전쟁연습의 영구중지 그리고 농산물시장개방을 가져온 《우루파이라운드협상》의 무효,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페를 주장하였다.

▲범민련 재중조선인 본부 성명 발표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괴뢰당국이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의 7년동안에 버린 액체페기물은 2만 9,513큐리, 기체페기물은 8만 4,737큐리, 고체페기물은 2만 9,034도람통이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페기물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한편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중남지구협회 조용환회장은 담화발표에서 핵페기물투기행위가 미칠 후과의 엄중성을 지적하고 김영삼괴뢰도당은 이미 바다에 버린 핵페기물의 량과 종류, 장소를 온 민족과 세계인민들 앞에 공개하고 즉시 사죄하며 핵페기물투기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청학련 중국 지역본부 성명 발표

지난 3월 25일 범청학련 중국지역본부는 미제의 반공화국핵전쟁연습소동과 김영삼괴뢰도당의 사대매국행위를 전체 재중동포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단죄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설 솔개

고구려시기 평양성에서 동북쪽으로 얼마간 떨어져있는 마산기슭에 솔개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어려서부터 마을사람들은 수리개처럼 날랜 그를 솔개라고 불렀다.

솔개는 토끼나 노루처럼 빠른 짐승을 사냥할 때 활을 쓰지 않고 달음박질로 붙잡았고 메돼지나 곰같은 사나운 짐승도 창을 쓰지 않고 맨주먹으로 때려잡군하였다.

그의 부모는 솔개의 이처럼 뛰여난 기질을 잘 키워주면 앞으로 나라를 지키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어려서부터 무술을 닦도록 하였다.

솔개를 적극 도와준것은 그 마을 윤지주네 집에서 노비로 살고있던 은비라는 처녀와 그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솔개가 무술을 닦는데 맞춤한 말이 없다는것을 알고 지주집 말을 몰래 빌려주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윤지주놈이 자기 밭을 돌아보다가 은비아버지가 다른 말로 후치질하는것을 보고 다짜고짜로 자기네 말을 어쨌느냐고 따졌다.

은비아버지는 하는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윤지주는 대번에 낯빛이 새파래져 그를 두들겨팼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아버지를 업고 집에 돌아온 은비는 그를 극진히 구완하였다.

솔개는 은비아버지가 윤지주에게 매를 맞고 골병이 들어 누워있는줄도 모르고 무술을 익히는데만 전념하였다. 그는 은비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는 날에야 그 사연을 알게 되였다.

해저문 저녁에 솔개가 은비아버지묘에 올라가니 마을사람들은 모두 내려가고 은비만 홀로 남아 슬피 울고있었다.

솔개는 은비아버지무덤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목놓아울었다. 격분한 그는 당장에 윤지주의 목을 쳐서 은비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려 하였다.

그때 은비가 조용히 말하였다.

《고구려의 남아는 한번 칼을 뽑아들제 떳떳한 군공을 세우지 않고는 칼을 꽂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에는 간신이 득실거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지경밖에는 왜적이 침노하여 변강에는 백성들의 피가 강물로 흐른다고 합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한사람의 원쑤를 갚고저 나라지킬 큰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였소이다.》

황혼이 짙은 골안에 어디선가 말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솔개와 은비가 주위를 살펴보니 말 한마리가 골짜기 샘터에서 샘물을 쭈룩쭈룩 먹고있었다. 긴 다리에 늘씬한 허리를 가진 룡마였다. 말은 한껏 물을 먹고 골안이 울리도록 시원스럽게 코투레를 하더니 산으로 오르려 하였다.

순간을 놓칠세라 솔개는 비호처럼 몸을 날려 말잔등에 올랐다. 놀란 말은 솔개를 태운채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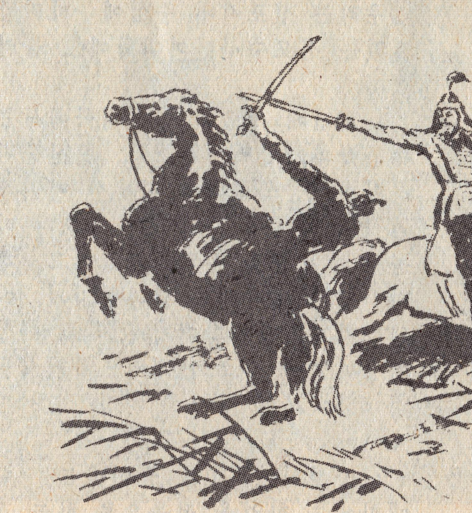
룡마를 타고 닦은 솔개의 무술은 참으로 놀라왔다. 솔개가 룡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 말은 세길네길 높이 뛰여멀리 달리였고 활을 쏘고 몰아대면 화살과 같이 목표에 가닿았다.

이 시기 남쪽변경에 외적이 침입하였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나라에서는 군사를 모집하였다.

솔개는 부모와 마을사람들의 뜻에 보답할 때라고 생각하고 룡마를 타고 전장으로 달려갔다.

싸움터에서 그는 평양성의 젊은이답게 맹활약을 하였다. 그가 룡마를 타고 적진으로 달려가면 번뜩이는 칼날에 외적이 삼대처럼 쓰러졌다. 놈들은 그의 말발굽소리만 들어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고구려군사들은 그의 군공을 칭찬하여 솔개장군이라고 불렀다.



솔개장군이 개선하자 나라에서는 그의 부모를 평양성에 모셔오게 하였다.

왕은 솔개장군이 아직 총각이라는것을 알고 그에게 장가를 들라고 하였다.

이때 딸을 둔 지주와 귀족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솔개장군을 사위로 맞기 위해 갖은 모략을 다 꾸미였다.

어느날 솔개는 왕에게 아뢰였다.

《제가 적으나마 군공을 세우게 된것은 마산의 미천한 은비와 그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조상대대로 의리를 귀중히 여겨오고있으니 은비를 안해로 맞는것이 하늘의 뜻인줄 아옵니다.》

왕은 솔개가 천비를 안해로 맞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하늘의 뜻이라고 우기는 그의 말을 꺾지 못하여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솔개장군은 은비를 안해로 맞게 되였다.

세상에 명성을 떨친 솔개장군이 천한 노비인 은비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자 백성들은 그의 미덕을 칭찬하며 좋아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은 솔개가 나라의 륜리를 어겼다고 시비하였다.

왕은 하는수 없이 솔개장군에게 안해를 버리고 지체높은 가문의 딸을 안해로 맞으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솔개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는 벼슬자리를 내놓을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주었고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김춘추의 구걸행각

신라 제29대 태종무렬왕의 이름이 김춘추였다.

그는 성골(부모가 다 왕족인 1등품계의 귀족)출신 왕족남자들의 대가 끊어져 할수 없이 2등품계의 출신중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인물이다.

이 《영걸》이 우리 민족사에 어떤 죄악을 남겼는가.

신라가 그때까지 나라를 보존해올수 있었던것은 고구려 광개토왕이 군사를 풀어 왜의 침입을 물리치고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었던것을 구원하여주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640년대에 이르러 신라는 차츰 세력이 커지고 힘이 강해지니 은인이나 다름없는 고구려를 배신하는 길로 나갔다. 특히 고구려가 북방의 강대한 종족들과 맞서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있을 때마다 신라 통치배들은 그 틈을 타서 남쪽 변경을 침노하여 자기의 령토를 확장하군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령토인 죽령과 마목현 이남 500리 지경을 강탈하여 자기 령토에 편입시켰고 고구려의 랑비성(충주지방)을 쳐서 병합한적도 있었다.

642년 여름에 신라는 대야성을 백제에게 빼앗기고 그 성의 도독인 이찬 품석과 그의 처 고타서를 비롯한 수많은 장병을 잃었다. 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였다. 대야성의 참패는 춘추에게 있어서 딸과 사위까지 잃어버리고 유골조차 찾아오지 못한 씻을수 없는 치욕으로 되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말할수 없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했던 김춘추는 몇해 지나자 앞뒤도 가려보지 않고 구걸행각의 길을 떠났다.

그가 청병을 위해 발길을 내디딘 외국행각의 대상지는 왜왕정이였다.

당시 왜왕정은 호족들 호상간에 정권을 둘러싸고 싸움질이 빈번하였다.

왜왕정을 찾아간 김춘추는 처음부터 왕에게 빌붙었다.

《귀국의 대화개신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귀국이 앞으로 반드시 번영하리라 믿습니다.》

어제만 해도 적국이나 다름없던 왜왕정에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같이 낮추 붙으니 그를 따라온 심복부하인 사간(8등관작) 훈신까지도 이마살을 찌프렸다.

《고마운 말씀, 지난날 우리 두 나라는 이렇게까지 관계가 깊어보지는 못했던것 같은데…》

왜왕은 이렇게 은근히 조소했다.

이것은 왜땅에 백제계통사람들이 세운 소왕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말함이다. 왜왕은 그 당시 신라가 사신 박제상을 보내여 청병하려다가 참변을 당한것을 념두에 두고있는 것이다.

왜왕은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망정 왜국의 신하는 될수 없으며 차라리 계림의 매를 맞을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록은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굴복하지 않던 박제상의 모습이 떠올랐다.

왜왕은 소름이 끼쳤다.

(저 사람도 신라사람이지. 헌데 어쩐지 박제상하고는 판판 다른것 같다…)

왜왕은 물론 옛사람인 박제상을 볼수 없었다. 허나 그의 사나이다운 굳센 모습은 본듯이 간직하고있었다.

왜왕은 신라의 어린 왕자 미사흔이 청병왔을 때를 상기시켰다.

춘추가 말했다.

《미사흔왕자는 고마왕국에 청병하려온 신라의 왕자였지 볼모는 아니였소이다.》

왜왕은 지금에 와서 그가 볼모냐 사신이냐 하는것을 따져 무엇하겠느냐고 말했다.

오가는 대화에서 옆에 앉아있던 훈신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였다.

《제가 오늘 귀왕정을 방문한것은 미사흔왕자처럼 청병때문이지요. 지금 우리는 두 대국의 틈에 끼워서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아닙니까? 우리의 사정을 봐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만 주신다면 저는 볼모의 대우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춘추의 이 말을 들은 훈신은 얼굴을 들수 없었다.

《비렬한!》

수치스러운 발자취를 남기고 그들이 돌아올 때였다.

《소인은 이번에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왔소이다. 헌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것이오며 또한 우리의 행동도 남의 비웃음거리로 되리라 여겨지옵니다.》

《그건 무슨 당치 않은 망발이냐!》 훈신의 말에 춘추가 이렇게 말하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소인은 이날 이때까지 이찬의 충복으로 살아왔소이다. 하오만 이제 더는 이런데를 따라다니지 않겠소이다. 다른 나라에 청병하자는 뜻이 무엇이오니까. 소인은 청병구걸도 창피하거니와 더우기 동족간의 싸움은 저질러서는 안될 대죄인줄로 아옵니다.》

꿇어엎드린 훈신은 어깨를 후두두 떨며 울었다. 그의 굵은 눈물방울들이 쉼없이 갑판우에 떨어졌다.

《네가 정녕 죽고싶으냐?》

춘추는 악에 받쳐 웨쳤다.

《아아, 이 목을 버이여 저 바다에 던져주소이다. 소인은 일이 그릇된줄 알면서도 마지 못해 따라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오리다.》

《오냐, 그렇다면 원대로 하여주마!》

춘추는 허리에서 긴 칼을 빼여들었다. 서늘하게 날이 선 칼이 허공을 가르며 한번 번쩍하자 훈신의 목이 바다에 떨어졌다.

《저놈은 나라를 배반한 역신이다! 안팎이 다른놈은 그가 누구든 저렇게 될것이다!》

눈에 피발이 선 춘추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김춘추는 이듬해 겨울 셋째 아들 문왕을 데리고 당나라로 갔다. 역시 청병을 목적한 구걸걸음이였다.

당태종은 신라사신일행을 예상외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나라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도 앞을 다투어 사신을 초청하였다.

춘추는 호화로운 주연속에 묻혀 세월가는줄 모르고 지냈다.

어느날 그는 황제를 만난 자리에서 백제가 서북 변경을 자주 침범하므로 마음놓고 살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태종은 그의 말을 다 듣고나서 《음, 요즘에도 백제가 신라의 서북 변경을 자주 침노한단말이지?》하고 혼자소리를 하였다.

《그렇나이다. 백제 좌평 의직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강토를 페허로 만들었나이다.》

춘추는 어떻게 하나 피해입은것을 과장하여 청병을 하려고 정도이상 죽는 시늉을 하였다.

《허, 그거 참 안됐군, 정말로 그 지경이 됐단 말이요?》

태종은 춘추를 굽어보며 동정을 표하였다. 가느스름하게 뜬 그의 눈에서는 조소의 빛이 번쩍이였다.

《짐은 그대의 나라를 기특히 여기는바요. 또한 신라는 섬기는데서 뭇나라들중 으뜸이라 그 정성이 갸륵하기 이를데 없소. 특히 그대가 〈악랑군왕〉 승만(진덕녀왕)의 한팔이 되여 우리 대국을 섬기는데서 기둥이라니 어찌 고마운 일이 아니겠소. 짐은 풍채가 영특하고 름름한 그대를 대하고보니 기쁘기 그지없소.》

당태종의 치사에 춘추는 황송하여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하였다.

《황감하여이다. 페하께서 대해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시오니 어찌 다 갚사오리까.》

춘추는 매일같이 호화롭게 보냈으나 속에서 불이 일 지경으로 마음이 조급하였다.

(어떻게 하면 좌우격식이 없이 황제를 조용히 만날수 있을가?)

더는 보챌수도 청원할수도 없게 된 춘추는 당태종의 측근자들을 찾아가서 리치를 따져가며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진귀한 토산물을 주며 꼬여보기도 했으나 기회는 좀처럼 차례지지 않았다.

그러던 춘추는 뜻밖에도 문득 황제의 부름을 받게 되였다.

춘추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몹시 서두르며 말했다.

《신의 나라가 멀리 바다 한구석에 있으면서 대국을 섬긴지가 여러해가 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포악하고도 교활한 백제가 자주 침범해오고 더구나 지난해에는 대거침입하여 수십개의 성을 빼앗았으므로 대국에 찾아올 길마저 막혔나이다.

만약 페하께서 군사를 풀어 흉악한 무리들을 잘라없애지 아니한다면 신라사람들은 남김없이 사로잡히게 될것이오며 험한 륙로와 수로를 거쳐서도 조공하지 못하게 될것이오이다.》

당태종이 청병을 허락하자 그는 서둘러 떠날 차비를 하였다.

당태종은 조서를 내려 김춘추를 특진으로 삼고 아들 문왕을 좌무위장군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3품이상 관리들에게 명하여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전송하게 하였다.

춘추는 황제에게 자기 아들 문주가 숙위(황제곁에서 호위하는것)하도록 해달라고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드디어 그는 수하들을 거느리고 귀로에 들어섰다. 그들이 탄 배는 살같이 달렸다. 허지만 춘추는 발편잠을 잘수가 없었다. 나라지경이 가까와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갔다. 그는 배의 한 골방에 들어박혀 갑판우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자기와 꼭같은 옷차림을 시켜 배우에 앉혀놓고서야 어느정도 마음을 놓았다.

고구려에서는 이미 춘추일행이 고구려지경을 거친다는것을 알고 경계를 하다가 순라병을 보냈다.

《김춘추 이놈! 잘 만났다. 너를 예서 기다린지 오래다. 그래 무사히 지나갈줄 알았느냐? 여기저기서 외적을 끌어들이려 하고 배신을 일삼는 네가 갈 길은 죽음밖에 없다. 어서 칼을 받아라!》

순라병들의 손에 걸렸지만 목이 날아난것은 하인이였다.

그는 몰래 작은 배에 옮겨앉은후 부랴부랴 신라로 돌아왔다.

그후 맏아들 법민을 당나라에 보내여 20만대군을 끌어들이고 백제, 고구려를 미친듯이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인민들은 힘겨운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렇듯 김춘추를 비롯한 신라봉건통치배들의 사대적인 구걸행각과 턱없는 령토확장의 야욕으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는 그후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수치스러운 오점을 찍어놓게 하였다.

그런데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바로 이런 사대매국노를 《영걸》이라고 극구찬양하였으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들 역시 사대매국노들이다.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배반하고있는 김영삼을 비롯한 력대남조선당국자들의 처사도 김춘추와 다를바 없다.

본사기자



독자란

공명정대하고 명철한 강령입니다

저는 이제는 나이도 들고 눈도 어두워져서 잡지 《금수강산》을 받으면 자식들에게 랑독을 시킵니다.

자식들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년로한 몸이지만 가슴속 흥분을 금할수 없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 국제반동세력의 그 어떤 압력과 위협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주적인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참으로 커다란 격동이 없이는 그려볼수 없는 자랑스러운 화폭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우에 이처럼 강하고 떳떳하며 긍지높은 시대가 아로새겨진것은 그 언제였겠습니까.

저는 잡지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받아안고 너무 기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수하고 떠받들어나갈 가장 공명정대하고 명철한 강령입니다.

이 강령이야말로 해외에 흩어져 살고있는 모든 동포들까지도 사심이 없이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고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입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두가 다 과거지사를 불문하고 애국의 길은 분단조국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을 안아오는 길임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통일위업에 적극 나설것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훈계를 잘하여 조국을 잘 알고 조국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있는 힘과 지혜를 다바쳐가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만세!

조국통일 만세!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안향 전만자촌 3조 장생금(구술), 맏아들 최택룡(정리)

애국적인 주인공들처럼

저는 잡지 《금수강산》을 볼 때마다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잡지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태우는 한 해외동포를 잊지 않는 조국의 따스한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한페지한페지를 읽고 사진들을 새겨볼수록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또 잡지지면에 담겨진 조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새겨가느라면 조국과 멀리 있는 이 몸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떠난 어린아이와도 같은 서운한 마음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저는 잡지를 통하여 미처 다 몰랐던 조국의 현실을 환히 알게 되였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였습니다.

또한 조국분단의 비극적현실과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저는 한 해외동포로서 분단의 아픔을 진실로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성업에 저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굳은 결심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잡지에 실린 애국적인 주인공들처럼 생활의 한순간한순간을 값있게 보내겠습니다.

《금수강산》잡지에 조국에 대한 좋은 소식과 이야기들을 더 많이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철용하남산 신흥향교공장 리금숙

모스크바조선인로병위원회 성명 발표

재로씨야교포단체인 모스크바조선인로병위원회 지도성원들이 비전향장기수로 수십년동안 남조선감옥에 갇혀있었던 김인서, 함세환 로인들의 공화국북반부 송환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김인서, 함세환 로인은 이미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직후 제네바협약에 따라 공화국북반부로 송환되였어야 할 대상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송환은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에 친척도 없이 늙고 병든 몸으로 고통에 시달리고있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주의를 돌릴것을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였다.

성명은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이 살고있는 공화국북반부로 김인서, 함세환 로인을 즉시 송환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거듭 촉구하였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오만무례한 책동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지난 6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은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10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는 핵문제를 걸고 우리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할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기구협조를 중단》한다는 천만부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기구의 《제재》이며 본질에 있어서 유엔《제재》의 전주곡이다.

이번 《결의》조작을 계기로 《핵문제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기구서기국 일부 계층의 음모는 드디여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특수지위하에서도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선의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가 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 대한 압력과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안전과 자주권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당하고있다.

기구서기국의 일부 계층은 우리의 모든 선의와 아량을 무시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는 끝내 《제재》를 가하는데까지 사태를 이끌어왔다.

이것은 미국과 기구서기국이 사찰공간을 리용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압살하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다.

기구서기국의 일부 계층이 로골적인 강권행사의 길에 들어선 오늘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결론은 기구의 불공정한 테두리안에 얽매여있을수록 우리에 대한 압력은 더해지고 우리의 평화적핵활동도 그만큼 장애만 받게 된다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굴욕을 감수하는 그런 인민이 아니다.

이번에 기구서기국이 이른바 《제재》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기구의 전면사찰을 강요한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이나 《제재》가 가해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질것이며 평화적핵활동은 그만큼 더 자유로와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위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에 대하여 부당한 《제재》를 가하고 더우기 우리의 군사대상물에까지 끝내 침입하려고 오만무례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다는것을 천명한다.

첫째,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즉시 탈퇴한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기구의 모든 부당한 《결의》들을 무효로 인정하며 우리는 금후 기구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기구가 없이도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핵활동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확대시켜나갈수 있다.

둘째, 우리의 특수지위하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련속성보장을 위한 사찰을 더이상 지금처럼 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선언한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날 때까지 그 어떤 부당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이로부터 기구사찰원들도 우리 나라에서 더이상 할 일이 없게 될것이다.

셋째, 유엔《제재》는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립장을 강력히 재확인한다.

《제재》와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

적대세력의 《제재》조치의 확대에 자위적조치의 확대로 대응하는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립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사태발전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고적 륙승정

리조시기의 루정인 륙승정은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다.

륙승정이란 이름은 이 루정에서 모란봉의 달뜨는 구경, 남산의 해지는 경치, 약산동대에서 울려오는 구성진 피리소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무술익히는 소리, 천주사의 저녁종소리, 학교에서 글읽는 소리의 여섯가지 아름다운 운치를 감상할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륙승정은 항미정이라고도 한다.

륙승정의 동쪽에는 모란꽃과 같이 아름다운 녕변의 모란봉이 손에 잡힐듯 가까이 있고 서쪽에는 관서8경의 하나인 약산동대가 그림처럼 안겨오며 남쪽에는 남산과 함께 철옹성 남문이 하늘높이 솟아있다.

륙승정은 옛날에 청천강이북의 루정가운데서 제일이라고 하였다.

륙승정은 주변의 자연경치에 알맞게 련못을 파고 그 가운데 돌축대를 쌓고 지었다.

《녕변읍지》에 의하면 1727년 가을에 련못을 파고 다음해 여름에 정자를 세웠으며 1768—1771년사이에 정자의 형태를 고쳤다.

륙승정은 앞면 3간, 옆면 2간인데 북쪽 가운데간에 한간이 덧붙어있다.

루정안에 들어서면 사방이 트이고 안팎의 경치가 훌륭하여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온다.

륙승정 련못가에 늘어
　진 실버들
실실이 날실로 늘여나
　볼가
구름가에 솟아있는 약
　산의 진달래
송이송이 비단필에 수
　놓아볼가

륙승정은 원래 과거 녕변부사의 관청앞에 량반관료배들의 놀이터로 세워진 루정이다.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이 루정은 오늘 옛모습대로 단청되고 주변은 나무와 꽃밭으로 꾸려져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